



<달빛-월미도>순지에 수묵담채, 69×136cm, 2004

최병국은 송도중학교 재학 시절, 미술 교사였던 황추 선생의 지도 하에 미술반 활동을 했다. 이때 실질적으로 미술반을 이끌던 사람은 현 동국대학교 교수인 오원배였다. 70년대 초 당시에는 송도중·고등학교가 같은 울타리에서 생활하면서 미술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매일 오후 청관이나 월미도에 나가 수채화를 그렸고 정기적으로 발표회도 개최하였다. 제물포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도 꾸준히 미술부 활동을 한 최병국은 대학졸업 후 지금까지 20여 년간 인천화단의 젊은 리더로 활동해오고 있다. 특유의 부드러운 품성과 포용력이 예술가들에게 어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최병국은 11회의 개인전과 수많은 초대전 그룹전을 통하여 그 특유의 수묵풍경화 세계를 선보였다. 작가의 말에 의하면 수묵풍경화는 주변의 풍경을 먹으로 스케치하듯 그린 것으로 내면에 떠오르는 느낌을 잔잔한 필치로 옮겨 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그림은 잔잔함 속에 걱정이 있고, 고요함 속에 소리가 있으며 먹색에 오채가 있다. 이 그림은 으스스 달이 뜬 월미도의 풍경을 그린 최근작이다. 우리 근대사 격동의 한 세기를 대변해주듯 밤의 적막감을 요란한 기계음이 가르고 달빛은 휘황한 전등불의 위세에 맥을 못 추고 스러져 간다.

글 _ 이경모(인천대학교 겸임교수/미술평론가)

Good Morning
굿모닝인천

INCHEON

2004 | 07



여름 특집

Cool~ Incheon
여름 놀이터, 인천 앞바다에 풍덩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인천에서 하나 된 남과 북

통일의 열기로 뜨거웠던 인천의 6월이었다. 6·15 남북 공동선언발표 4주년을 기념하는 우리민족대회가 지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인천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대회가 열린 이래 최초로 서울을 떠나 지역에서 열린데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축제의 마당으로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본행사 이외에도 대회를 전후로 인천 지역 곳곳에서 환영행사가 다양하게 열렸다. 부평구에서는 통일을 주제로 한 연극제가 열렸고 북한만화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제가 연수구에서 진행되는데 이어 서구에서는 통일염원 춤축제가 열렸다. 또 월미도에서 열린 동아리 축제를 비롯해 통일음악회, 각종 전시행사, 통일마라톤 등의 행사가 시내곳곳에서 펼쳐졌다.



14일 _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환영만찬회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 대표단 김정호 단장 등이 도착하자 우리측 화동들이 북한 대표단(사진 맨 왼쪽)에 꽃다발을 전달했다. 또한 이날 환영만찬회에 참석한 6·15 공동선언 우리민족대회 북한 대표단을 안상수 시장이 반갑게 맞이했다(사진 가운데). 이날 만찬에는 우리측과 북한대표 및 해외대표단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15일 _ 우리민족대회 통일대행진이 인천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펼쳐졌다.



16일 _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우리민족대회 마라톤경기가 열렸다.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신경철 시의회의장, 북측 김정호 단장, 남측 최기산 신부, 황영조 감독 등 대회 참석자들이 민족화합을 다짐했다.



Cool~ Incheon
여름 놀이터,
인천 앞바다에
풍덩

- 08 덕적도
- 10 신도 · 시도 · 모도 · 장봉도
- 12 자월도 · 이작도 · 승봉도
- 14 선재도 · 영흥도
- 16 용유도 · 무의도
- 18 백령도
- 19 대청도
- 20 연평도
- 21 섬 속 '맛' 보기
- 22 강화도
- 24 불음도
- 26 무인도 기행
- 28 야호~ 섬 산행
- 30 바위 이야기
- 32 팜스테이
- 34 길찾기



- 02窓 2004 | 사진으로 보는 우리민족대회
- 36포커스 | 민선3기 2주년 발자취
- 42굿인친 굿뉴스 | AMEC사, 투자유치 MOU 체결 외
- 46in. Stage | 〈아낌없이 주는 나무〉 외
- 49옥상영화제 후기
- 50사람하나 만나고 싶다 · 일곱번째 사람 | 김연용 씨
- 54Youthzine | 인화여자고등학교 카누부
- 55Healthy life | 아름다운 성
- 56독자마당 | 이달의 테마 '애완동물'
- 60Info Box | 불법 주 · 정차 무인(CCTV)시스템으로 단속합니다 외
- 64화폭에 담긴 인천풍경 ㉔ | 최병국 <달빛-월미도>

굿모닝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04.7 (통권 127호)

시민의 힘 하나로! 인천의 힘 세계로!

〈굿모닝 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2~3) 광고문의 (032-440-2042, 2071)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발행일자 2004년 7월 1일 발행처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인 인천광역시시장 안상수 편집인 공보관 조윤길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 박상영 사진 심영보 · 하장원(시공보관실) · 김성환 · 김정식(자유사진가)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 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지설명 _ 하얀 파도, 고운 모래의 인천바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Cool~ Incheon

여름 놀이터, 인천 앞바다에 풍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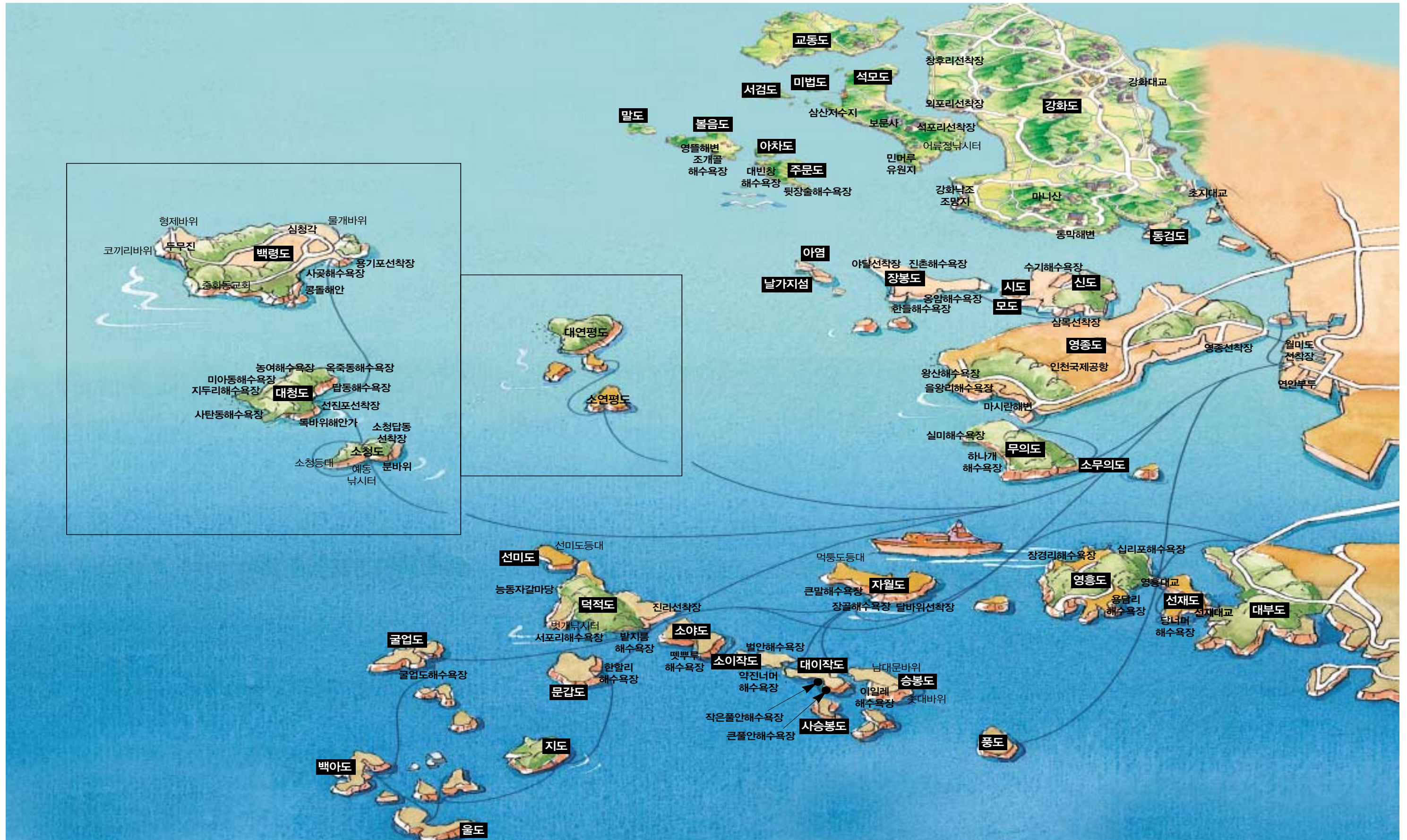
인천 앞 바다는 푸근하다.

따뜻한 바닷물, 얇은 해안, 점잖은 파도...낮에는 바다 품에 안겨 신나게 물놀이 하거나 통통배를 빌려 낚시를 즐길 수 있고 밤에는 해송 사이로 이는 바람소리와 파도소리를 들으며 별이 쏟아지는 밤을 지새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 곳, 여기는 인천바다.

바닷가 사람들은 따듯하다.

‘순수 자연’이라는 바탕색에 물들어 사는 섬사람들의 성정은 자연색을 닮아 참으로 인간답다. 고독, 낭만, 평화, 그리고 그리움... 인천 섬에 오면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섬표’를 찍으며 투명한 자연색에 동화돼 지낼 수 있다.

사진 _ 김성환 · 김정식(자유사진가) · 웅진군청 제공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큰물



덕적도(德積島)는 큰물섬, 즉 수심이 깊은 바다에 있는 섬이라는 뜻을 지닌 섬이다. 서해바다에 떠 있음에도 물이 맑아 일찍부터 국민관광지로 지정돼 피서객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는 있는 곳이다.

덕적도의 대표 해수욕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포리해수욕장은 경사가 완만한 30만평의 넓은 백사장에 100년이 넘는 울창한 해송 숲과 해당화가 한데 어우러진 천혜의 휴양지다. 해수욕장 가까이 민박집을 비롯해 텐트촌, 족구장, 테니스장, 노래방, 자전거 대여점 등 위락시설이 다양해 '레포츠 천국'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발지름해수욕장은 오염되지 않은 청록색의 바다이다. 해수욕장 뒤쪽으로 비조봉이 솟아 있고 앞으로는 끝없는 수평선이 펼쳐져 있어 절경을 이룬다. 곱고 깨끗한 황금빛 모래사장과 수백년 된 해송 600그루가 어우러진 바닷가이다. 서포리가 청춘남녀들의 해변이라고 한다면 발지름은 가족들이 오붓하게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이다.

쑥개·소재해변은 민가와 다소 떨어져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어촌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이에게 제격이고 진리 선착장에서 북으로 8km쯤에 위치한 북리는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낭만적인 해안절경을 볼 수 있는 덕적도의 '숨은 보물'이다.

덕적도의 또 하나 명물은 능동자갈마당. 이름 그대로 주먹만한 돌멩이부터 공기돌처럼 작은 자갈까지 뽀뽀하게 깔려있는 해안이다. 해안의 반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다이면서도 호수처럼 아늑한 느낌을 준다. 주변의 기암괴석과 붉게 물들이는 낙조, 그리고 인접해 있는 갈대밭이 연출하는 낭만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연인들의 산책코스로 추천할 만하다. 앞에는 어부들의 길잡이 선미도 등대가 뻗히 보인다.

민물낚시를 즐기려는 이들은 벅개낚시터, 갯바위 낚시는 서포리 선착장과 능동자갈마당 등에서 '손끝 맛'을 만끽할 수 있다.



1 서포리해수욕장 2 덕적도 적송림 3 발지름해수욕장 4 비조봉 5·6 능동자갈마당

한 걸음 더 | 덕적의 가족섬들

덕적군도는 본도를 포함해 소야도 등 8개의 유인도와 33개의 무인도가 바다 위에 올망졸망 떠 있다. 대개 주민수가 적은 초미니섬들이라 하루 밤만 자고 나면 손님이고 주인이고 구별 없이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섬들이다.

소야도 덕적도에서 500m 떨어진 섬으로 주위가 천연 백사장으로 이뤄져 있다. 바다 낚시를 할 수 있고 해안경관이 좋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진다. 여인숙, 식당 등은 없으나 민박이 가능하고 섬 전체에서 야영이 가능하다. 약 700m 짜리 은빛 모래사장이 있는 떼뿌루해수욕장이 있다.

문갑도 섬의 경관이 뛰어난 문갑도에는 경사가 완만하고 아담한 약 300m 짜리 한할리해수욕장이 있다. 앞바다에서는 꽃게, 우럭, 놀래미 등이 많이 잡히고 해수욕장 인근에서는 조개잡이 등 갯벌체험을 할 수 있다.

선미도·백아도·지도·울도 이들 섬은 해수욕장이 없는 게 아쉽지만 대신 우럭, 놀래미 등 물고기가 잘 잡히는 섬들로 강태공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 우리나라 등대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선미도 등대, 애달픈 사랑의 전설이 깃든 백아도의 선단여와 꿈을 닮은 곰바위 등은 꼭 보고와야 할 명소이다.

찾아가는 길 _ 덕적도 진리선착장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하는 해양호를 타면 문갑도(20분)-굴업도(50분)-백아도(1시간10분)-지도(1시간20분)-울도(1시간40분) 순으로 운행된다. 소야도는 덕적도에서 하루 다섯 번 운항하는 종선을 5분 정도 타면 닿을 수 있다. (문의 _ 우리고속훼리 887-2891~5)

숙박 정보 _ 소야도(832-5586) 문갑도(831-9937) 울도(831-3467) 백아도(834-6306) 굴업도(832-7100) 등이 있다. (문의 _ 덕적면사무소 831-7701)

찾아가는 길 _ 연안부두에서 초쾌속선 프린세스호(50분 소요)나 오클랜드호(1시간 소요)를 타면 된다. 덕적도 안에는 마을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이동에는 큰 불편이 없다. (문의 _ 우리고속훼리 887-2891~5)

숙박 정보 _ 해수욕장 주변에 여관이나 민박집이 수두룩하다. 텐트를 치고 야영도 할 수 있다. (문의 _ 덕적면사무소 831-7701 서포리번영회 831-6623)

고동잡는 재미에 인어도 반했다고?



1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옆 삼목선착장에서 배를 타면 바다 냄새를 제대로 맡아보기도 전에 신도에 닿는다. 그만큼 북도면의 섬들은 물과 가까이 있다. 하지만 가깝다고 해서 섬의 냄새마저 희석되어버린 건 아니다. 섬 속으로 들어갈수록 고스란히 살아있는 섬마을 정취에 빠져 볼 수 있다.

선착장이 있는 신도에서 시작해서 시도 그리고 모도까지 이어지는 세 개의 섬은 모두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 따지고 보면 한 섬이나 마찬가지이다. 세 섬을 이어주는 두 개의 다리는 운치있는 가로등이 세워져 있어 다리를 천천히 걸어보는 일도 괜찮다. 하지만 더 흥미있는 일은 이 다리 위에서 해보는 낚시이다. 휴일이면 다리 난간에 서서 낚시를 즐기는 이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농어, 도다리 등 낚시꾼들이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잘 잡히니 그럴 수밖에.

섬 외곽을 타고 도는 일주도로는 자동차를 타고 달려도 좋지만 하이킹코스으로도 더할나위 없다.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하며 두시간 남짓 섬을 일주하는 이 코스는 짝조름한 바다내음을 맡으며 바다와 눈높이를 맞추는 재미를 선사한다.

구봉산 정상에 오르면 신 · 시 · 모도를 한눈에 넣어볼 수 있다. 정상까지는 임도가 나있어 차를 타고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차로 후다닥 올라버리기 보다는 뒷짐을 진 채 쉬엄쉬엄 걸어서 오르는 것이 맛이 있다. 그 여정은 온갖 산새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삼림욕을 즐기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정상에 서 있는 구봉정에 앉으면 여행객들을 싣고 세계 각국으로 뜨고 내리는 온갖 국적의 비행기를 구경할 수 있다. 신도의 수기해수욕장은 야트막한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호젓한 해변이다. 물이 빠지면 빨이 드러나 바지락과 고동, 소라를 캘 수 있고 물이 들면 자갈과 고운 모래가 적당히 어우러진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해변 양쪽 부리에서는 갯바위낚시를 즐길 수 있다. 주변에 민가나 민박집은 없지만 식수와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어 야영하기엔 최적이다.

수기해수욕장은 또 7월부터 방영되는 sbs 드라마스페셜 '풀하우스(주연 : 송해교, 비)'의 오픈세트가 세워져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바닷가에 그림처럼 들어선 세트 주변엔 벌써부터 드라마의 분위기를 미리 느껴보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세 섬의 막내처럼 맨 끝에 달려 있는 모도는 시도와 이어지는 연육교에서의 낚시가 추억만들기에 제격이다. '모도와 이일호'라는 조각공원도 있다. 같은 북도면이지만 신 · 시 · 모도에서 장봉도로 가려면 다시 배를 타고 20여분 나가야 한다. 인어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장봉도는 땅과 바다가 만나는 해변 모두가 갯벌체험장이라 해도 좋을 만큼 해변이 수두룩하다. 웅암해수욕장이나 한들해수욕장 모두 끝이 안보일 정도로 드넓게 펼쳐지는 갯벌에서 갯놀이를 즐길 수 있다.



1 장봉도 한들해수욕장 2 시도 모도간 연육교 3 노르메기 선착장에서 낚시 4 구봉정에서 내려다본 풍경 5 신도 수기해수욕장 6 '모도'로 가는 길에 있는 조각상들 7 장봉도 웅암해수욕장

찾아가는 길 _ 영종도 국제공항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다 신불IC로 빠지면 5분여 만에 삼목선착장에 닿는다. 여기서 오전 7시 10분부터 오후 6시 10분까지 평소에는 2대가, 피서철에는 3대가 신도(7분 소요), 장봉도(30분 소요)를 운항한다. 신 · 시 · 모도와 장봉도에는 배시간에 맞춰 마을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큰 불편은 없다. 자동차를 배에 싣고 갈수도 있다. (배시간 문의 : 884-4155)

숙박 문의 _ 북도면사무소(880-2601)

파도야, 달빛이 정말 검붉더냐



‘자월(검붉은 달)’이라는 다소 낭만적인 이름을 가진 자월면에는 어느 곳 하나 더 빼어나다고 우열을 가리기 힘든 세 개의 섬, 자월·이작·승봉도가 나란히 떠있다.

그 가운데 자월도는 세 섬 가운데 가장 크고 면사무소도 있어 ‘큰형’격인 섬이다. 달바위라는 어여쁜 이름의 선착장에 도착해서 맨 처음 만나게 되는 자월의 바다는 장골해수욕장이다. 물이 들고 남에 따라 해변의 모양이 수시로 달라지는데, 모래사장의 높낮이가 서로 달라서 해변 군데 군데 모래섬이 생긴다. 해변 뒤로는 야영을 하기에 좋은 장골소공원이 펼쳐져 있다.

큰마을해수욕장은 해변가에 파란 잡초가 자라서 흰빛의 모래와 푸른 빛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갑진모래는 소나무 숲 아래쪽에 숨어 있어서 아는 사람만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아담한데다 고운 모래로 가득한 해변은 물때와 관계없이 늘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오붓한 시간을 즐기려는 이들이 많이 찾는다.

사슴개와 변남금은 가족과 갯놀이하기에 좋다. 물이 빠지면 광활하게 드러나는 갯벌에서 소라와 고동, 낙지를 잡는 재미를 맛볼 수 있다. 두 곳 모두 민가가 많지 않고 한적해서 조용한 피서를 보내려는 이들에게도 제격이다. 하늬개 역시 바지락과 소라를 잡을 수 있고 바로 옆에 우럭과 놀래미가 많이 잡히기로 유명한 낚시터 국수당이 있다. 낚시를 좋아한다면 가늉골 역시 반드시 가보아야 할 곳.

자월도 여행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코스는 국사봉 등산이다. 곧장 등산로로 오르기 보다는 산의 허리께에서 임도로 빠지는 길로 접어들면 자월도를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국사봉의 옆구리를 타고 걸어볼 수 있다.

자월도에서 배로 10분만 더 나아가면 달게 되는 대이작도는 옛 영화 ‘섬마을 선생님’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영화를 기억하는 이라면 이미 폐교가 되었지만 섬마을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했던 계남분교터나 문화나무같은 촬영지를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부아산 정상에 쉬엄쉬엄 올라 정자에 앉으면 대이작도와 그 옆 소이작도까지 훤히 내려다보인다.

이작도를 찾는 이는 누구나 큰 풀안이나 작은 풀안 해수욕장에서 보내는 한나절을 잊지 못한다. 모래가 곱고 물도 맑다. 그 앞에는 풀등이라는 신기한 모래사막이 있다. 큰 풀안이나 작은 풀안 해수욕장에서 보트를 타고 가면 달을 수 있는데 물이 빠지면 드러났다가 물이 차 오르면 바다속으로 몸을 숨기는 시한부 모래사막이다.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지치면 배를 타고 나가 풀등에서 너댓시간 놀다가 물이 다시 차 오를 즈음해서 돌아오면 신기한 한나절을 보낼 수 있다.

승봉도의 명물은 이일레해수욕장이다. 수심 1미터 정도까지 들어가더라도 발가락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은 물이 해변을 가득 채우고 있다. 물이 빠져도 갯벌이 드러나지 않는 이 해수욕장의 모래는 곱디 고와서 맨발로 걷는 감촉이 그만이다. 남대문을 닮았다는 남대문바위와 촛대바위도 볼거리. 바로 옆 무인도인 사승봉도는 썰물 때 섬 주변으로 삼각형 모양의 모래땅이 드러나 절경을 이룬다.



1 하늘에서 본 자월도 큰말해안 2 자월도 장골해수욕장 3 이작도 작은풀안해수욕장 4 승봉도 이일레해수욕장 5 승봉도 촛대바위 6 사승봉도

찾아가는 길 _ 연안부두(40분~1시간 소요)와 경기 대부도(1시간~1시간20분 소요, 차량 가능)에서 갈 수 있다. 자월을 거쳐 이작도, 승봉도에 닿는다. 각 섬 안에는 배 시간에 맞춰 마을버스가 다닌다. 연안부두 우리고속훼리(887-2891~5) 대부도 대부해운(886-7813~4).

숙박 문의 _ 자월면사무소(833-6010~1)

해수욕, 갯벌놀이... 물 끝 따라 즐긴다

영흥도로 가는 징검다리 섬 선재도는 작지만 아름다운 섬이다. 빙 두른 해안선이 고작 12km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이지만 갯마을의 풍광은 서해안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예쁘다. 밀물 때는 버선코처럼 오뎅하게 수면 위로 튀어 오른 섬만 보이지만 막상 물이 빠지면 섬보다 더 너른 갯벌이 나타난다. 선재도(仙才島)라는 이름은 해변의 굴곡이 아름답고 물이 맑아 선녀들이 내려와 먹을 감았다고 해서 붙여졌다. 이름만으로도 왠지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다. 육지와 연결되는 선재대교를 건너면 바로 왼쪽으로 당너머해변이 펼쳐진다. 굽은 모래와 갯벌이 뒤섞인 이 해변에는 이제 선녀들 대신에 사람들이 먹감고 동죽이나 조개 등을 잡으면서 갯벌놀이를 한다.

목섬 & 측도 선재도 바로 앞에는 목섬이란 무인도가 있다. 흡사 물위에 떠있는 봉분 같이 앙증맞게 생긴 섬이다. 섬의 끝으로 이어진 바닷물줄기를 섬사람들은 '목떼미' 라고 부른다. 물이 빠지면 쉽게 건너가 잠시나마 '로빈슨크루소'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다른 곳은 다 질퍽거리는 갯벌로 돼 있지만 희한하게도 이 섬으로 들어가는 길만은 모랫길이다. 목섬까지는 불과 300m 정도. 물 때 맞춰 건너가면 검은 갯벌이 웅단처럼 반짝거리는 선재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잠시 후 태양은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바다 건너 산자락으로 넘어가며 진혼곡을 울린다. 한순간 바다는 금빛으로 물들어가고, 갯벌은 보석처럼 반짝거린다.

선재도의 남서쪽 끄트머리에는 또 다른 섬, 측도(測島)가 있다. 하루종일 바닷물에 비친 제 그림자와 대화하며 쓸쓸하게 보내는 이 섬은 하루 두 번 물때에 맞춰 선재도와 하나로 이어졌다가 떨어졌다 한다.

바닷물이 양쪽으로 빠지면서 점차 드러나는 자갈길은 여행의 잔재미를 만끽하게 해준다. 해변에 서서 바다 건너편 선재도나 영흥도, 영흥대교를 바라보는 것도 색다른 맛이다. 이곳에서 보는 빠알간 석양은 어느 서해 일몰보다 아름답다.

측도에서는 포도농사를 많이 하며 일부 민박집과 식당이 있다. 모래와 자갈로 된 잠수도를 이용해 사람은 물론 차량통행도 가능하다. 선재도 뱃말삼거리 근처에 측도로 가는 비포장도로가 있다. 밤에는 잠수도를 밝히는 가로등이 환상적이다.



영흥도 기행은 자동차로 영흥대교를 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다리 양쪽으로 햇살 받아 빛나는 은빛 바다에 점점이 박힌 무인도들과 흰 통통배들이 만들어내는 정경이 한가롭다. 영흥도와 선재도 두 섬 사이에는 마치 조물주가 공기를 놓아둔 것처럼 울창한 섬들이 흩어져 있다.

영흥도에는 세 군데의 해수욕장이 있다. 먼저 섬에 들어와 북쪽 길을 타면 십리포해수욕장을 만날 수 있다. 굽은 왕모래와 자갈한 자갈이 1km나 깔린 해변가 뒤로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곳뿐인 소사나무(일명 서어나무) 군락지가 병풍처럼 쳐있다. 수령 150년을 자랑하는 소사나무 300여 그루가 심어져 있는 숲은 훌륭한 그늘막을 제공하는 동시에 찬바람을 시원하게 내뿜어대는 '천연에어컨'이다. 멋지게 구부러진 나뭇가지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롭다.

섬의 서쪽 바다에는 장경리해수욕장이 있다. 1.5km라 펼쳐진 해변가 뒤로는 숲이 펼쳐져 있어 텐트 치기에 그만이다. 가까이에 장급 수준의 민박집이 있어 가족 피서지로도 적합하다. 장경리해수욕장은 특히 일몰이 압권이다. 여름철이면 해변 한가운데로 해가 떨어진다.

섬의 남단에 자리하고 있는 용담리해수욕장은 들어오고 나가는 물 끝을 따라다니며 해수욕과 갯벌놀이 하기에 좋은 곳이다. 섬이 슬그머니 물자락을 걷어올리면 바지락과 동죽 그리고 석화굴을 채취하면서 수렵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영흥도 연안선 총 길이는 38km 정도. 섬 전체의 도로가 잘 닦여있어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제각각 다른 물맛을 느낄 수 있다. 진두포구에서 십리포해수욕장과 장경리해수욕장, 국사봉, 용담리해변 등을 천천히 둘러보려면 서너 시간은 잡아야 한다.



1 선재대교 2·3 선재도 앞 목섬 4·5 측도 6 영흥도 십리포해수욕장 서어나무 숲 7 영흥도 용담리해수욕장 8·9 영흥도 장경리해수욕장



찾아가는 길 _ 자동차로 시화방조제를 거쳐 대부분을 지나서 선재대교와 영흥대교를 건너면 섬에 닿는다. 구 시외버스터미널(용현동) 앞에서 선재도를 거쳐 영흥도까지 가는 버스(태화버스 _ 883-5111)가 하루 네 번 운행된다.

숙박 정보 _ 선재도와 영흥도는 민박집을 비롯해 여관, 모텔 등 숙박시설이 즐비하다. 특히 십리포해수욕장 근처에는 향토관광마을이 있어 시골식 민박 경험을 할 수 있다. (문의 _ 영흥면사무소 886-7800~2)

숨바꼭질 하듯 숨어있는 해변들

공항고속도로를 따라 영종도에 도착하면 물씬 바닷내음이 풍기는 듯 하다. 잘 닦인 남쪽 제방을 따라 이어진 해안도로를 17km 정도 달리면 이 해안도로의 끝이 바로 용유도다. 가장 먼저 방문객을 맞는 곳은 거잠포해변이다. 해안선을 따라 마시란, 용유, 선녀바위해변, 을왕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이 숨바꼭질하듯 숨어있다.

덕교마을을 지나 소나무 숲길을 따라 달리면 왼편으로 긴 해변이 나타나는데 바로 마시란해변이다. 물이 빠지면 바다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갯벌을 펼쳐놓는다. 소나무 숲이 울창해 야영을 하기에 적당하다. 용유해변은 줄지어 늘어선 소나무 숲 너머 아담하게 펼쳐진 해변이다. 맨발로 걷기에 적당한 모래와 땀이 적당히 반죽돼 있다.

을왕해수욕장은 완만한 경사와 백사장으로 어린이와 함께 가족단위의 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또한 해변의 끝 쪽으로는 갯바위가 경관을 이루고 있어 여유롭게 낚시를 즐길 수 있으며, 특히 수평선 넘어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낙조 경관을 감상하기도 좋은 해변이다.

을왕리에서 고개 하나만 넘으면 분위기는 영 탄탄한 왕산해수욕장이 숨어 있다. 을왕리가 화려한 피서를 즐기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적당하다면 왕산은 가족끼리 오붓하고 편안한 휴가를 즐기기에 적당하다. 드넓은 해변 앞으로 모래사장이 펼쳐져 야영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서해답지 않게 조금만 들어가도 깊은 물을 만날 수 있어 물놀이하기에도 제격이다.



아름다운 무희의 춤사위를 닮은 무의도는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섬이다. 무의도의 큰무리선착장에 닿으면 첫발자국은 대개 실미해변에서 찍게된다. 해변입구에는 손님들의 집을 실어 나를 리어가가 사열하듯 늘어선 있어 이채롭다. 은빛 모래가 깔린 초승달 모양의 해변은 2km가 넘고 100년도 넘은 아름드리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송림 속에 방갈로, 민박, 텐트장, 횡집 같은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서해안에서 물이 빠져나가 수영을 할 수 없는 아쉬움을 겪어본 사람이라도 이 곳에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서해안 최초로 담수풀장이 운영되고 있어 언제든지 맘만 내키면 수영을 즐길 수 있다.

실미해수욕장 앞에는 무인도인 실미도가 코 앞이다. 1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실미도의 촬영무대이자 실제 현장이다. 약 100m 정도의 거리로 바닷길이 열렸을 때 걸어 들어가면 특별히 장화를 준비하지 않아도 쉽게 건널 수 있다. 바닷길이 열리면 그야말로 살아있는 갯벌이 생긴다. 굴은 물론이고 낙지까지 잡을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재미 삼아 몇 마리 잡아보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좋겠다. 실미도 영화 세트장은 철거되어 볼 수 없지만 그 터가 남아 있어 생생한 역사 현장을 상상해 볼 수 있다.

푸른 해송을 배경으로 깨끗한 백사장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큰무리 하나개해수욕장에서는 바다와 숲의 정취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다. 해변의 길이는 2km가 넘고 폭은 800m 정도다. 물이 빠지면 해변의 폭은 끝없이 늘어나 4km가 넘는 정도로 펼쳐진다. 1km 정도는 고운 모래로 되어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뿔이다.

이 해변은 드라마 '천국의 계단' 촬영지로도 명성을 높였다. 드라마의 주인공 권상우와 최지우의 어린시절 추억이 담긴 세트장이 아직도 고스란히 보존돼 있다. 바닷가에 서면 나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 든다.

해변 뒷편의 송림은 한낮에도 햇살 한 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우거져 있어 야영하기에 적당하다.

무의도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은 호룡곡산(246m)과 국사봉(230m) 등산이다. 호룡곡산은 서해의 알프스라고 불릴만큼 고래바위, 마당바위, 부처바위 등 기암괴석이 즐비하고 능선에서 내려다보는 서해 전경은 그야말로 그림 같다. 호룡곡산 정상을 지나 구름다리를 건너 국사봉도 함께 정복할 수 있다.



1·2 을왕리해수욕장 3 마시란해변 4 덕교마을의 소나무 숲 (이상 용유도) 5 실미도 6·8 하나개해수욕장 7 실미도 (이상 무의도)

찾아가는 길 _ ① 용유도는 월미도에서 영종행 여객선(영주해운 762-8880)에 차를 실으면 15분만에 영종선착장에 닿는다. 해안도로를 이용해 을왕리 표지판을 따라 달리면 30분이면 을왕리에 닿는다. 또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해 영종대교를 지나 영종도에 들어서 용유도 방향으로 진행한다.

② 무의도는 월미도에서 영종행 여객선을 이용해 영종선착장에 내린후 6차선 해안고속도로를 70~80km의 속도로 17분 정도 계속 가다 보면 도로가에 '무의도 4.4km' 라고 적힌 안내판이 보인다. 이 이정표를 따라 좌회전을 하면 잠진도선착장에 도착한다. 잠진도선착장에서 무의행 여객선(무의해운 751-3354~6)을 이용하면 큰무리선착장에 도착한다. 또는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무의도에 갈 수도 있다. 단, 연안부두에서는 차를 배에 실을 수 없다. (우리고속훼리 887-2891~5) 연안부두를 떠난 배는 남쪽의 샘꾸미선착장(또는 광명선착장)에 닿는다.

숙박 문의 _ 용유동사무소(760-7991, 7992) 을왕해수욕장변영회(746-3213) 용유출장소 무의지소(760-7830) 하나개해수욕장변영회(751-8866, 751-8833) 실미해수욕장변영회(752-3636(숙박전용), 752-4466, 751-6161)



Cool~ Incheon | 백령도

바다 끝에 다다르니 비경이 있더라

1

바다의 종착역처럼 서해의 꼬트머리에 홀연히 떠있는 섬 백령도는 4시간이라는 만만치 않은 여정에도 불구하고 섬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사람들의 출입이 잦아서인가, 섬 안에 들어가면 작은 소도시와 같이 변화한 거리가 활기차 보인다. 은행, 마켓, 음식점, 노래방 등 웬만한 편의시설을 거의 갖추고 있어 낯설지 않다.

하지만 바다쪽으로 한발자욱만 더 걸음을 떼어보면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자연들과 마주대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으뜸은 바로 사곶해수욕장이다. 세계에서 이태리의 나폴리와 단 두곳밖에 없는 천연비행장이라는 데, 아무리 쿵쿵 걸어도 발자욱이 남지 않을 만큼 모래사장이 고운 모래들로 단단하게 채워져 있다. 유사시에는 실제 비행장으로 쓰이는 이 해변 위로 자동차도 다니고 트랙터도 다닌다. 피서철이면 이 드넓은 모래사장 위로 알록달록한 파라솔들이 꽃히고 태양아래 누워 일광욕을 즐기는 이들로 가득찬다.

콩돌해안은 공기돌보다 약간 큰 오색빛깔의 돌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해변이다. 태양에 뜨겁게 달구워진 자갈 위를 맨발로 걷는다면, 확실한 건강발맞사지가 된다. 두무진은 서해의 해금강이라는 애칭이 있을 만큼 비경이다. 웅맹한 장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것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두무진(頭武津)이라 한데, 바다에서 시작해 하늘로 기세 좋게 뻗은 바위들을 보면 정말 장군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든다. 이 주변 해안에는 선대암과 코끼리바위가 물을 마시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의 코끼리바위, 물범들이 떼지어 산다는 물범바위, 바위 가운데가 창처럼 뚫려 있는 창바위 등 둘러볼만한 곳이 수두룩하다.

백령도는 심청전의 배경무대이기도 하다. 심청이 바다에 몸을 던진 인당수라 전해지는 곳은 바로 두무진 앞바다. 그곳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심청각'이 있다. 이곳에는 심청전 고서를 비롯해 음반과 영화대본, 모형 등 심청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있어 흥미를 자아낸다.



1 두무진 2 사곶해수욕장
3 콩돌해안 4 창바위 5 심청각 6 코끼리바위

찾아가는 길 _ 연안부두에서 하루 두차례 운항하는 초쾌속선을 타면 소청도, 대청도를 거쳐 4시간만에 백령도 용기포항에 도착한다. 섬 안에는 마을버스와 개인택시는 물론 렌터카 업소도 있어 교통이 편하다. 여관 등 숙박업소도 충분하다. 진도운수(888-9600), 온 바다해운(884-8700)

숙박 문의 _ 백령면사무소(836-1771~2)



Cool~ Incheon | 대청도

네 눈 속에 쪽빛바다가 있어

1

세시간 반 남짓 걸리는 뱃길의 고단함을 순식간에 날려버릴 만큼 대청도의 풍경은 절경이다. 이 섬 전체를 해수욕장이라 불러도 좋을 정도로 대청도에는 빼어난 해변이 수두룩하다. 게다가 갯벌이 드러나지 않고 물때와 상관없이 늘 모래로 뒤덮인 해변이라 물놀이를 좋아하는 이라면 반할만 하다.

우리나라 10대 해수욕장의 하나로 꼽히는 사탄동해수욕장은 대청도 사람들이 피서를 올 만큼 물이 맑고 모래가 곱다. 파도가 다소 거칠고 높게 일어서 해변에 앉아 파도소리만 들어도 시원한 기분이 든다. 농여해수욕장은 모래 해변의 높낮이가 서로 달라서 물이 빠지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들이 넓은 해변 곳곳에 웅덩이를 만들어 놓는다. 태양이 때맞춰 물을 따뜻하게 데워주면 어린이 전용 풀장이 된다.

답동해수욕장은 탁 트인 수평선이 좋고 옥죽동해수욕장은 비취색 바닷물이 잔잔한 호수처럼 보이는 바다이다. 물이 들어와도 어른 종아리 정도 밖에 안되는 깊이의 바다가 꽤 먼곳까지 이어져 어린아이를 둔 가족들이 마음 폭 놓고 놀 수 있다.

옥죽동해변 바로 옆에는 거대한 모래 언덕이 펼쳐져 있다.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온 모래가 한해 두해 쌓여 작은 동산을 만들어 놓았다. 그 모래는 하도 고와서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을 살살 간질이는 느낌이 부드럽기 그지없다. 맨발로 언덕 위로 걸어갔다 옥죽동 해변쪽으로 내려오면 마치 사하라 사막이라도 온 것 같은 기분에 빠져볼 수 있다. 지두리는 일부러 자로 재어 그어 놓은 것처럼 네모반듯하게 생긴 해변이다.

대청도를 찾는 또 다른 재미 중의 하나는 낚시대만 던지면 물고기가 달려 나오는 천혜의 낚시터라는 점이다. 물과 바위가 만나는 곳 어디나 좋지만 특히 독바위와 서풍바위 일대는 낚시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곳이다. 대청도 바로 옆 소청도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소청등대와 분칠을 한 것처럼 하얀 바위가 둘러싸여 있는 분바위가 있어 이국적인 정취를 물씬 풍긴다.



1 사탄동해수욕장 2 옥죽동 3 모래사막 4 독바위 5 지두리해수욕장 6 서풍바위 (이상 대청도) 7 소청등대

찾아가는 길 _ 연안부두에서 하루 두 차례 가는 배가 있다. 날씨에 따라 변동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로 확인 후 출발하는 것이 좋다. 소청도를 거쳐 대청도에 도착한다. 대청도 안에는 마을버스가 수시로 운행하기 때문에 이동에 큰 불편은 없다. 소청도에는 대중교통시설이 없다.

숙박 문의 _ 여관(엄지 836-2035) 여인숙(희망 836-2102, 웅진 836-2021, 문화 836-2015, 선진 836-2138, 경동 836-3009, 소청 836-3052) 그밖에 민박집 및 관광문의 : 대청면사무소(836-2004) 소청출장소(836-3301)

바람처럼... 자유로운 바다

‘꽃게’가 연평도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지만, 막상 연평도를 찾는 이들은 그보다 먼저 사람의 손때가 거의 묻지 않은 자연에 반해버리고 만다. 인천에서 127km나 떨어져 있는 먼 섬이지만 선착장에서 본 마을 풍경은 도시의 어느 작은 마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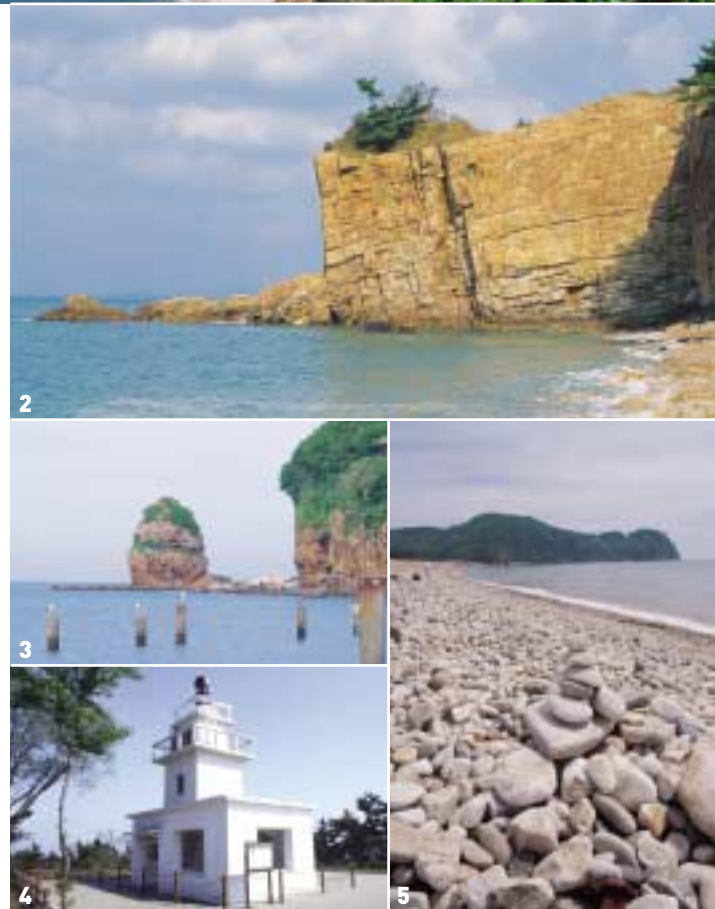
섬 여행의 첫 코스는 대개 뺨뺨옹 절벽으로 잡는다. 영화 ‘뺨뺨옹’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스티브 맥퀸이 ‘Free as winds’라 외치며 바다를 향해 뛰어내리는 그 절벽과 닮았다 해서 이런 별명이 붙었다. 까마득한 낭떨어지 아래로 푸른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펼쳐져있다.

구리동 해수욕장은 썰물 때 백사장이 500m 정도 드러나는 해변이다. 새마을해변은 자연학습장으로 괜찮고 구문나루해변은 하얀 모래사장이 일품이다. 가래칠기 절벽은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곳이다. 제법 가파른 등반코스이기도 한데 한여름에 찾으면 계곡에서 시원한 물이 쏟아져 내려온다. 아이스크림바위의 절경도 빼먹지 말아야 할 코스이다. 겨울에 바위 위로 눈이 쌓이면 꼭 과자가 있는 아이스크림 처럼 된다고 해서 이런 애칭을 얻었다.

봄부터 가을까지 잡히는 연평도 꽃게는 전국에서 제일 씨알이 굵고 맛도 좋기로 유명하다. 바지락과 굴도 풍부하고, 특히 옛부터 고급 어종으로 대접받아온 준치를 배낚시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썰물 때 밤이 무르익는 시간 즈음해서 랜턴을 들고 안목어장으로 나가면 바와 지라는 게가 날려있고 소라, 굴, 낙지를 비롯해서 꽃게도 잡을 수 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소연평도를 반드시 찾을 일이다. 이 섬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가 있다. 소연평도로 가는 길목엔 사람의 모습을 닮은 얼굴바위가 기다리고 있다. 오석해안은 맨발로 자갈밭을 걸으면 지압 효과가 있고 태양열에 뜨거워진 자갈 위에 눕거나 걸으면 찜질방이 따로 없다.

찾아가는 길 _ 연안부두에서 쾌속선(2시간 소요)이 물때에 따라 한달에 보름 정도는 매일 왕복운행한다. 실버스타호(4시간 소요)는 이틀에 한번씩 연평도로 출발한다. 진도운수(주) 888-9600. 섬 안에는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민박집에 미리 전화를 해서 교통편을 제공받는 것이 좋다.

숙박 문의 _ 서해장(831-4555) 제일(831-4363) 황해장(832-4707) 해성(832-4156) 연도파크(831-2065) 연동타운(831-3705) 아리까리장(831-6066) 송림(831-4675) 연평(831-4165) 웅진(832-4193) 조신준(831-2946) 김경구(831-5788) 경진섭(831-4153), 최옥선(831-3635) 김옥란(831-1230) 연평면사무소(880-2602, 831-4471)



1 가래칠기 해변 2 뺨뺨옹 절벽 3 아이스크림 바위 4 연평도 등대 5 구리동 해수욕장

입맛 다시는 ‘맛’ 있는 섬

여행지에 대한 기대가 마음을 들뜨게 한다면 그곳에서 맛보게 될 음식은 입맛을 다시게 만든다. 섬 안에는 ‘맛의 원형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며 감탄사를 연발하게 될 정도로 소박하지만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린 맛집들이 있다. 우리시가 지정한 ‘맛이 있는 집’을 찾아가면 지역의 특색있는 재료들로 만들어진 섬 음식을 맛볼 수 있다.

토속점 _ 장봉도에 있는 토속점에 가면 독특한 맛의 한방오리백숙을 맛볼 수 있다. 주방일을 직접하는 주인 이재철 씨가 요리요리로 유명한 중국에서 요리법을 직접 배워와 그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개발한 것이다. 내장을 제거한 오리에 황기, 녹각 등 15가지의 한약재를 넣고 1시간 이상 푹 삶아내면 색깔이 약간 거무죽죽하고 육질이 부드러운 오리요리가 태어난다. 된장이나 고추장부터 사소한 야채까지 상에 올라오는 반찬의 모든 재료는 물맑고 공기좋은 소문난 웅암해수욕장 옆 텃밭에서 재배한 것들이다. **웅진군 북도면 장봉리 54 (☎ 752-7755) 한방오리백숙 3만5천원~4만원**



하늘가든 _ 영흥도의 바다는 물이 빠지면 끝 간 곳을 가늠하기 힘들만큼 드넓은 속살을 보여준다. 그 갯벌은 바지락을 원없이 캘 수 있는 식량창고 같은 곳이기도 하다. 하늘가든에는 영흥도 앞 바다에서 캐낸 바지락과 고추장이 빛내는 환상의 맛을 ‘바지락고추장찌개’라는 이름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 찌개를 먹는데는 땀과 눈물이 필수이다. 여름엔 바지락, 겨울엔 굴을 주 재료로 해서 고추장과 갖은 양념을 넣어 끓여 내는데 다 먹고 난 뒤에도 입이 얼얼할만큼 매워 속풀이에 제격이다. **웅진군 영흥면 내3리 (☎ 886-3916) 바지락고추장찌개 1인분에 1만원**



부두식당 _ ‘우리집에 왔다면 사람들이 모두 잘 먹고 간다면 칭찬이 대단하다’는 이 집 주인의 말처럼 부두식당에서 한 번 회를 먹어본 사람들이 이 집 회맛에 반하는 건 시간 문제이다. 백령도의 첫 관문인 용기포 부두 바로 맞은 편에 커다랗게 자리 잡은 부두식당의 간판은 1970년부터 오로지 싱싱함이라는 한가지로 이름을 떨쳐온 음식점답게 당당하게 자리잡고 있다. 회보다는 생선회에 곁들여져



나오는 밑반찬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도시의 상차림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투박해보일수도 있는 상이지만 회맛에 있어서만큼은 엄지손가락이 절로 치켜 세워진다. 청정해역인 백령도 인근 바다에서 그날 잡아온 싱싱한 횡감만이 부두식당의 상에 오를 수 있다. **웅진군 백령면 진촌리 413-37 (☎ 836-0008) 광어회·농어회 4만원**

사곳냉면 _ 집집마다 냉면 뽑는 기계가 있어 가정마다 흔히 냉면을 뽑아 만들어 먹었을 만큼 백령도에서 메밀냉면은 흔한 음식이다. 지금이야 메밀밭도 많이 없어지고 번거로운 탓에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 일이 드물게 됐지만 그 맛은 그대로 사곳냉면에서 이어지고 있다. 메밀냉면을 시키고 앉아 있다보면 엽차가 나오는데 이 물은 메밀 삶은 물이다. 호로록 하고 마시다 보면 진한 사골육수에 만 메밀 냉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까나리액젓을 몇방울 떨어뜨려 먹으면 맛있다. 육수를 한컵 정도 남긴 후 고명으로 나왔던 삶은 계란 노른자를 살살 푼 후 까나리 액젓과 식초로 간을 해 마시는 것도 별미이다. **웅진군 백령면 진촌리 528-1 (☎ 836-0559) 메밀냉면 4천원, 수육 5천원**



일품 _ 박속낙지는 말 그대로 박과 낙지가 만난 음식이다. 선재도의 일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맛은 낙지의 구수한 맛과 박의 시원한 맛이 어우러진 별미이다. 다시마, 바지락 등 각종 해물로 만든 육수에 식용 박의 속살을 넣고 푹 끓인다. 그런 다음 양송이, 팽이버섯, 호박, 양파, 청양고추, 조랭이떡볶이를 넣고 끓이다가 선재도 갯벌에서 잡은 싱싱한 낙지를 넣고 샤브샤브식으로 살짝 데쳐 양념간장이나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낙지와 채소를 다 건져 먹은 다음 칼국수를 넣어 끓여 먹으면 말 그대로 ‘일품’이다. **웅진군 영흥면 선재리 439-1 (☎ 888-9369) 박속낙지 2인분에 3만원**



※지난호(6월호) ‘우리시 지정 맛이 있는 집’에서 소개한 송원의 오리풀코스요리는 음식점 사정상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요리를 맛보기 위해 헛걸음 하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발 닿는 곳마다 얼음창고



1



2



3



4

강화에 도착하면 먼저 무엇을 해야할지, 어디를 가야할지 고민해야 할 정도로 놀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강화 남단에 자리잡은 동막해변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명소로 바다와 갯벌, 모래사장과 솔밭이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지이다. 물이 들어오면 시원한 해수욕장으로, 물이 나가면 무려 1천8백만평에 달하는 천연 머드팩장으로 변신한다. 또 물이 들어오면 망둥어, 숭어 등을 겨냥해 낚시를 할 수 있고 갯벌이 드러나면 게와 조개를 잡을 수도 있지만 강화 갯벌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만큼 그냥 관찰만 하고 보호해 주는 것도 미덕이다.

강화 남단의 갯벌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은 분오리돈대다. 조선시대 때 자연지형을 이용해 쌓은 곳으로, 반달형 평면을 이루고 있어 특이하다. 조망범위가 매우 넓어 낙조를 감상하기에도 좋은 포인트 지점이다. 경관도 좋은데다 조상의 슬기로운도 느껴 볼 수 있어 쉬엄쉬엄 둘러보기에 적당하다. 또 분오리포구에서는 시간만 잘 맞으면 어부들이 직접 잡아 판매하는 해산물도 아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다.

단군의 정기를 받아보고 싶다면 마니산으로 향할 일이다. 마니산 정상에 올라 단군이 쌓았다는 참성단에서 칠선녀가 채화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내려오는 길에는 함허동천야영장의 넓은 운동장과 계곡을 둘러보는 일도 싱그럽다. 천년고찰인 전등사와 초지진, 광성보 등도 둘러볼 만 하다. 외포리에서 여객선으로 15분이면 달는 석모도는 종합선물세트같은 휴양지이다. 해변, 사찰, 산이 골고루 모여있어 원하는 종류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석포리선착장에서 어류정 고개를 넘으면 만나게 되는 민머루유원지는 조그만 모래사장을 갖춘 곳이다. 조수간만의 차가 워낙 커서 밀물 때만 수영을 할 수 있다. 썰물때에는 1km나 갯벌이 펼쳐져 갯것 하기에 그만이다.

고요하고 정갈한 마음을 갖고 싶다면 우리나라 3대 해상관음기도도량 중의 하나인 보문사를 찾으면 된다. 불상을 모신 석실과 마애석불이 있으며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천인대터, 경내에 있는 향나무 등을 둘러보며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

아울러 낙조포인트로 더할 나위없는 한가razi 고개, 눈처럼 하얀 소금을 생산하는 삼랑염전, 싱싱한 횡감이 기다리는 어류정 낚시터도 놓치면 후회할 만한 곳이다.

외포리 선착장에서 볼음도(본지 24페이지 참조)를 거쳐 달게되는 주문도는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이다. 얼마 전까지 해변에 해당화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가 제방 공사로 사라진 것을 올해 서도면사무소에서 새로 해당화 3천주를 심었다. 앞으로 2년 동안 10km에 해당화를 심어 명사십리해수욕장 보다 더 멋진 해당화 길을 만들 계획이다. 주문도의 명물 대빈창해수욕장은 길쭉한 해안을 앞에 두고 뒤로는 소나무 숲 옆으로 축구를 해도 좋을만한 잔디밭이 펼쳐져 있다. 물이 막 빠진 갯벌에는 자갈처럼 보이는 소라, 민챙이 등이 수도 없이 널려 있다. 뒷장술해수욕장은 곱고 단단한 모래로 이루어진 해변이다. 해변 뒤쪽으로는 넓은 풀밭이 펼쳐져 있고 아카시아나무에서는 매미가 우렁찬 울음을 운다.

역사의 섬 교동도는 해수욕 보다는 낚시와 등산, 역사탐방을 하기에 제격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자의 화상을 모신 교동향교를 비롯해 화개사, 연산군 유배지, 철종의 잠저 등을 둘러볼 수 있다. 26만평에 달하는 고구지는 강태공들이 손맛을 잊지 못해 찾는 곳이다.



5



6



7



8

1·4 동막해수욕장 2 동막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분오리돈대 3 석모도어류정
향일출 5 삼랑염전 6 석모도 보문사
7 주문도 대빈창해수욕장 8 교동읍성

찾아가는 길 _ 100번 서울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이용 김포 나들목에서 김포·강화방면으로 진출해 48번 도로에서 강화방면으로 → 김포시청 → 마송 → 강화대교 → 강화도에 달는다.

동막해변은 강화대교 → 알미골삼거리 좌회전 → 84번 지방도 → 전등사 지나 선두포에서 우회전 → 동막해변

석모도는 강화대교 → 알미골삼거리에서 좌회전 → 84번 지방도 → 천우물삼거리 우회전 → 인산삼거리 우회전 → 외포리 선착장 → 배 → 석모도 석포리 선착장 → 전득이고개 지나 좌회전 → 삼랑염전 지나 민머루해수욕장에 달는다. 볼음도와 주문도는 외포리 선착장에서 삼보해운(932-6619)을 이용한다. 교동도는 강화대교 → 강화읍 → 송해면 → 하점면사무소 지나 삼거리 → 창후리방향 → 창후리 선착장에서 화개해운(933-3212)을 이용한다.

숙박 문의 _ 동막해변은 화도면사무소(937-1001~3) 석모도는 삼산면사무소(932-3001) 주문도는 서도면사무소(932-7004) 교동도는 교동면사무소(932-5001~3)

은빛 바다에 살포시 내려앉은 낭만의 섬

1

바다는 온통 안개에 젖어있다. 외포리선착장을 떠난 배는 진한 안개를 가르며 느릿느릿 볼음도로 향한다.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는 섬답게 좀처럼 그 속살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 하다. 외포항에서 배를 타고 약 1시간 좀 넘게 달리면 제일 먼저 닿는 곳이 볼음도다. 배는 다시 5 ~ 10분 정도 항해를 계속해 아차도 또는 주문도에 닿게 될 것이다.

볼음도선착장에 내리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볼음도에서는 논에서 한가로이 놀고 있는 두루미나 갯벌에서 쉬고 있는 철새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전형적인 시골의 간이역 같은 분위기의 선착장을 휘 둘러본 사람들은 지체 없이 해안도로를 따라 나 있는 왼편 길을 선택한다. 그 길을 따라 가다 처음 만나는 곳이 조개골해수욕장이다. 해수욕장 입구에는 작은 팻말이 서있다. 행여 길손들이 길을 잃을까 염려하는 섬사람들의 마음씨가 고스란이 배어나는 듯 하다.

입구에서 얼마나 지났을까. 눈앞에 펼쳐진 조갯골해수욕장은 송림으로 둘러싸여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해수욕장의 명물인 소나무 숲은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에게 안성맞춤의 야영장을 제공해 준다.

마침 물이 빠져나간 바닷가에 나서 본다. 1.2km에 달하는 해안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펼쳐져 있다. 발끝을 간질이는 모래는 마치 스펀지를 깔아놓은 듯 폭신평신했기만 하다.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 놀아도 좋을 강화 최고의 모래사장이다. 해수욕장 입구에는 새로 지은 샤워시설과 화장실 등이 자리잡고 있어 야영을 하기에 적당하다.

길을 되짚어 나와 마을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영뜰해수욕장이다. 갈매기울음소리만 잔잔히 들려오는 영뜰해수욕장은 고즈넉한 분위기다. 경운기 지나간 자리가 또렷이 남아있는 해변은 모래가 씻겨나가 조금은 아쉬움을 준다.

마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10만평 규모의 볼음저수지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비록 섬이기는 하지만 뱃길보다는 농사짓는 사람이 더 많은 볼음도에서 저수지는 젖줄과 같은 곳이다. 볼음저수지에는 가물치를 비롯해 붕어, 빠가사리 등 토종 어종이 많이 살고 있어 공식적으로는 낚시가 금지된 곳이지만 한 번 손맛을 본 낚시꾼들은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물 좋은 볼음저수지, 그리고 오염되지 않는 흙에서 난 볼음도의 쌀은 기름지고 찰져 밥맛이 좋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강화섬쌀'이라는 이름표를 붙인 볼음도의 쌀은 전국의 백화점과 할인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볼음저수지 옆으로는 서도은행나무가 마을의 수호신으로 자리잡고 있다. 800여년전 수해가 심할 때 바다에 떠내려 온 것을 이곳에 심은 것이라한다. 높이 25m, 줄기둘레 8m, 밑동둘레가 무려 9.7m에 이르는 이 나무는 최근까지 마을 사람들이 모여 평안함과 풍어를 비는 제사를 지내왔던 당산목이다.

다시 물으로 돌아오는 길. 아직도 섬은 안개에 휘감겨 있다. 논에서, 갯벌에서 만나는 이름 모를 철새들이 방문객을 배웅한다. 그렇게 섬은 끝끝내 그 신비로움을 험사리 드러내지 않는다.



1 조갯골해수욕장 2 영뜰해수욕장 3 볼음저수지 4 서도은행나무

찾아가는 길 _ 초지대교를 건너 84번 도로를 타고 길상면과 양도면을 지나 외포리선착장에 닿는다. 볼음도로 가는 배(삼보해운 932-6619)는 하루 두 차례 아침 9시 30분과 오후 4시에 있고 피서철에는 탄력적으로 증편된다. 안개나 태풍 등에 따라 결항할 수 있으니 출발 전에 출항 여부를 꼭 확인해야한다. 편도요금은 운전자를 포함해 승용차 1500cc 이하는 25,000원, 1500cc 이상은 35,000원이고 승객은 어른 5,300원, 학생은 4,800원이다.

숙박 문의 _ 명선민박(932-6897) 조병희(932-6810) 매표소민박(932-6808) 볼음여인숙(932-6825) 차의남(932-6811) 서도상회(932-6813) 볼음식당(932-5564) 바다민박(932-2201) 첫집민박(932-6890) 서도면 볼음출장소 (932-6801)

알아두면 좋은 정보 _ ①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는 섬이라 '주민등록증' 지참이 필수다. ② 민박을 할 경우 대부분의 민박집이 차량을 무료 운행한다. 될 수 있으면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 섬의 인심과 풍치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차를 가지고 왔을 경우 돌아갈 때 차량이 밀려 불편할 수 있다.

다섯시간 동안 ‘로빈슨크루소’ 되기



전기도, 전화도, 그리고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의 짧고 굵은 하룻밤. 피서를 계획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의도적인 고립을 꿈꾼다. 희망사항을 현실로 바꾸는 일은 인천바다에서라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인도로 향하기 위해 장봉도의 야달선착장에 섰다. 왼쪽부터 사염, 날가지, 그리고 아염이 차례로 떠있다. 이 섬들이 무인도가 되어버린 건 불과 3,40년 전. 방목하느라 풀어놓은 염소만 덩그마니 지키고 있을 따름이다. 겨우내 찾는 사람 없어 홀로 외로웠던 세 섬은 그러나 피서철이 되면 무인도에서의 한나절을 꿈꾸는 이들의 발길이心心찮게 이어져 섬을 들뜨게 만든다.

선착장마저 가득 채웠던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며 길을 터주자 서서히 선착장의 형체가 드러났다. 조개를 채취하기 위해 갯벌로 나가는 고깃배 한쪽에 의지하고 나선 길, 배는 5분만에 날가지섬을 한바퀴 돈 뒤 '장술 해변'에 객을 풀어놓는다. 무인도이기에 별다른 선착장이 없어 바다에 물을 담그지 않고 고깃배에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와 해변을 연결해주는 작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섬엔 한 150미터 남짓한 짧은 해변이지만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하얀 조개더미가 수북하게 쌓여 있다. 질푸른 잡초와 나팔꽃을 닮은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언덕, 그리고 나무가 울창한 숲을 끼고 있는 해변은 낮낮이가 서로 달라 어디에 서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바다의 모양이 달라 보인다. 해변을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2분 남짓. 바다를 향해 조개껍질을 던져보기도 하며 야생화 냄새를 맡기도 하면서 한참을 서성이다 보면 섬 주변을 걸어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빠진다. 그러면 이제는 갯벌에 나가야 할 때. 뺨을 걸어다니며 박아지나 소리, 고동, 상합 같은 해산물을 마음껏 채취하는 재미를 맛볼 수 있다.

그렇게 너댓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다시 물이 밀려오기 시작한다. 갯벌로 나갔던 사람들은 해변으로 다시 돌아와 섬과 가까워질 배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곤 처음 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사다리를 타고 배에 몸을 싣는다. 이렇게 하루 중 무인도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다섯시간 남짓.

젊은 친구들이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용감한 사람들이라면 해변가에 텐트를 친 뒤 하룻밤을 지새우는 코스를 택하기도 한다. 전기도 물도 없는 무인도이지만 로빈슨 크루소가 된 것 같은 묘한 흥분을 느껴볼 수 있다.

날가지섬은 장술해변이 있어 하룻밤의 야영이 가능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아염'이나 '사염'은 그럴만한 모래해변이 없어 반나절 정도의 탐사로 만족해야 한다. 비슷한 방법으로 섬에 도착한 뒤 무인도 주변을 돌아다니며 조개를 줍거나 낚시를 즐기다가 다섯시간 뒤 다시 물으로 돌아온다. 하루의 사분의 일에 불과한 시간이지만,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보기엔 그것도 족하다.



1 이작도 앞 풀등 2 야달선착장 3 아염과 사염 4 날가지섬 5 무인도에 사는 새 가마우지 6 장술해변

포인트 _ 무인도에서 놀기 위해서는 물때를 잘 맞춰야 한다. 낚시를 하려면 물이 제일 조금 들어왔다가 조금 나가는 '조금' 때가 좋고 바닷가에서 갯것을 하려면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는 '사리' 때가 좋다. 조금과 사리는 보름에 한번씩 돌아온다. 무인도에는 물이 나오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룻밤 정도 지낼 생각이라면 미리 먹을 물을 준비해 가야 한다. 섬 주변에 사는 어부들의 배를 타고 나갔다 돌아오는 고깃배를 빌려타는 비용은 왕복 12,000원 정도 한다.

문의 _ 북도면 장봉출장소(746-8009, 880-2608)

또 다른 무인도 _ 이작도에서 낚시배나 보트를 빌려 타고 가닿는 사승봉도와 상·하공경도는 물이 빠지면 섬 전체가 모래사막이라 해도 좋을 만큼 광활한 모래사막이 펼쳐지는 신비한 곳이다. 이작도와 승봉도 앞에 떠있는 풀등은 물이 차면 사라졌다가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모래언덕이다. 밀물때면 감쪽같이 바다 속에 숨어 있다가 썰물때면 홀연히 나타나는 모래사막에서의 한나절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섬은 아니지만 배를 타고 나갔다가 바다위에 떠 있는 모래언덕에서 한나절을 보낸 뒤 돌아오는 일도 이색체험이 될 수 있다. 덕적도에서 통통배를 타고 10여분 들어가면 무인도 먹도가 나온다. 8만여평이나 되는 넓은 곳인데 사전에 덕적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이색 체험을 할 수도 있다.



정상에 서면 쪽빛바다... 눈이 시리다

하얀 파도가 발아래 출렁이는 섬 산행. 바다를 끼고 있는 산은 어디를 가나 조망이 뛰어나다. 낯설기는 하지만 육지의 산을 오르는 것과 또 다른 산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여름 섬 산행은 바다, 섬, 산, 해수욕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최근 들어 새로운 테마 여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덕적도 비조봉 덕적도에는 국수봉, 비조봉, 운주봉 등 크고 작은 봉우리가 이어질 듯 끊어질 듯 능선으로 연결돼 있다. 바다 쪽으로 붙어있는 비조봉(292m)은 웅진 섬 산행의 백미이다. 산행 코스는 정상을 중심으로 서포리 코스, 발지름 코스, 진리선착장 코스 등이 있다. 어느 코스를 택하든지 2시간가량 소요되는데 트래킹하는 기분으로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다. 비조봉은 나무가 울창해서 걷다보면 자연스럽게 삼림욕도 겸할 수 있다. 동글레나 산나리 같은 자생식물들이 지천일 만큼 손때가 덜탄 산이다.

산 속의 고요. 어찌나 적막한지 마을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이다.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왼쪽 바다 오른쪽 바다를 번갈아 감상할 수 있다. 쉬엄쉬엄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조망점이 곳곳에 있어 산행은 지겹지 않다.

해풍에 실려온 바다 맛인가 내 몸에 흐르는 땀의 맛인가. 짭짤한 소금기가 입에 스며들 때 쫄면 어느덧 정상이다. 꼭지점에 서면 확트인 발아래로 펼쳐진 쪽빛바다에 눈이 시리다. 굴업도, 백아도, 소야도, 문갑도... 웅기종기 딸린 섬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 사이로 배들이 흰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달리는 모습. 발가락처럼 툭 튀어나온 섬의 굴곡을 간질이는 흰 파도... 한 폭의 수채화가 그대로 그려진다.

비조봉 산행의 압권은 해질 무렵에 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놓칠 수 없는 비경이다. 검푸른 바다에 진홍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장엄한 노을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잠시 숨을 멎게 한다.

무의도 호룡곡산·국사봉 무의도에는 섬 양쪽으로 '서해의 알프스'라는 칭송을 들을 만큼 수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호룡곡산(244m)과 국사봉(230m) 두 봉우리가 솟아있다. 고려바위, 마당바위, 부처바위 등 기암절벽이 있는 두 봉우리에 오르면 위쪽으로 인천국제공항이 내다보이고 서해쪽으로는 끝을 알 수 없는 바다 위에 수많은 섬들이 줄지어 있다. 생태관찰로(340m), 산림체험로(4km), 전망대 등을 갖춘 삼림욕장이 있다. 샘꾸미선착장~마을입구 등산로~호룡곡산~구름다리~국사봉~애기봉~실미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등산코스는 쉬엄쉬엄 걸으면 2시간 정도 걸린다.

대이작도 부아산 대이작도에는 부아산과 소리산이 동서쪽에 나란히 솟아있다. 아기를 업은 듯한 모습을 띤 부아산(188m)은 선착장에서 700m정도 걸어 큰말을 지나면서 산행이 시작된다. 부아산의 산세는 언뜻 보기에는 험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지금은 길을 잘 닦아 놓아 누구나 쉽게 오르내릴 수 있다. 아슬아슬한 80m 길이의 구름다리를 건너 정상에 오르면 '부아정'이란 이름이 붙은 정자에서 땀을 식힐 수 있다. 가까이엔 신비의 섬 풀치를 비롯해 자월도, 승봉도, 소이작도, 덕적도가 도란도란 얘기하듯 바다 위에 떠 있다. 쾌청한 날씨에는 멀리 인천시내가 한눈에 보인다. 바다 위로 떠오르고 지는 태양을 바라보기에도 좋은 곳이다. 전망 때문이었을까. 19세기까지만 해도 해적들의 활동 근거지였다고 한다. 섬 이름도 해적들이 사는 곳이란 이적도였으나 이를 이작도로 바꿨다고 한다.

신도 구봉산 구봉산(178m)에 오르는 길은 7,300여 그루의 산벚꽃나무가 뽀뽀하게 우거져 있다. 임도를 따라 4km를 걸어 구봉정에 오르면 인천국제공항이 코앞이고 강화도, 김포반도 등도 한눈에 들어온다. 정상까지 길이 잘 닦인 산악자전거 코스가 있으며 2시간이내 코스의 등산로가 여러 개 있다. 쉼터를 갖춘 구봉산 성지역수터도 유명하다. 밤에 구봉정에 오르면, 공항에서 펼쳐지는 빛의 마술쇼를 감상할 수 있다.

자월도 국사봉 해발 165m의 국사봉에 오르기 위해서 면사무소 옆길로 접어든다. '임도'와 '등산로'가 있는데 임도는 산의 옆구리를 끼고 한바퀴 돌며 오르는 길이다. 큰마을 해변부터 장굴, 그리고 하늬개에 이르기까지 섬의 동서남북을 눈으로 훑을 수 있다. 등산로는 조금 가파른 길이지만 계단식으로 잘 다듬어져 있어 10분 정도면 정상에 닿을 수 있다. 살살 부는 해풍을 맞으며 마을풍광과 수평선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한번 하면 마음은 금방 세상을 품을 만큼 넓고 자유로워진다.



1·2 비조봉정상 3 비조봉 오르는 길 4 부아산구름다리 5 장굴해변 6 부아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바다 7 구봉산 올라가는 길 8 국사봉 정상에서

바람과 파도가 만든 걸작품

섬은 조각 작품의 전시장이다. 장군, 코끼리, 곰, 선녀... 조각품의 테마도 다양하다. 기기묘묘한 형상을 빚어낸 조각가는 바람과 파도. 수천년 동안 만들어 낸 걸작품을 감상하는 일도 웅진 섬 기행에서 느낄 수 있는 색다른 맛이다.

소연평도 얼굴바위

여객선을 타고 소연평도로 향하면 섬에 닿기 직전에 얼굴바위를 만나게 된다. 오희한 콧날, 바다를 응시하는 듯한 눈매, 반듯한 이마 등 잘 생긴 남자의 옆얼굴과 똑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해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바위인데 각도가 조금 지나치면 제 모습을 볼 수 없어 더 애달다.

각홀도 곰바위

문갑도와 백아도 사이에 떠있는 무인도인 각홀도에는 곰 한 마리가 발톱을 세우고 있다. 곰바위는 곰이 앞발을 들고 포효하는 듯한 형상이다. 묘하게도 바다 건너 중국대륙 쪽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출렁이는 파도 위로 독특한 전경을 그려내는 곰바위는 선상에서 볼 수 있다.

소청도 분바위

분바위는 마치 여인네가 분을 칠한 것처럼 보인다. 소청도의 푸른 바다와 조화를 이루며 해안선을 따라 장엄하게 펼쳐진 거대한 대리석은 신이 빚은 작품으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마치 달빛이 하얗게 띠를 두른 듯 해 ‘월띠’라고도 불리운다. 분바위는 그믐 밤 바다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배들의 방향잡이 역할을 한다. 분바위에는 원나라 순제가 놀다 가던 곳으로 전해지는 길이 50m의 굴이 안으로 뚫려 있다.

백아도 선단여

덕적면 백아도 앞바다에 떠 있는 선단여는 슬픈 이야기를 품고 있는 바위이다. 옛날 백아도에는 늙은 부부와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죽게 되자 외딴섬에서 살고 있던 마귀할멈이 여동생을 납치한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오빠는 배를 타고 낚시를 하던 중 풍랑을 만나 이름 모를 섬에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 곳에서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데 이 여인은 바로 어렸을 적에 헤어졌던 자신의 여동생이다. 이들의 사랑을 안타깝게 여긴 하늘은 선녀를 보내 둘의 관계를 설명하나 남매는 이 사실을 부인한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고집을 부리는 이들에게 하늘이 노하고 오빠와 동생, 그리고 마귀할멈은 번개에 맞아 죽는다. 그 후 이곳에는 3개의 절벽이 솟아나게 되었으며 이를 애통해 하던 선녀가 붉은 눈물을 흘리며 승천하였다. 이후 바위는 ‘선단여’라고 불리게 되었다.

승봉도 촛대바위 · 남대문바위

승봉도는 기묘한 바위들의 전시장이다. 부두치 해변 입구를 지나면 삼형제바위 해변에 닿는다. 바다를 바라본 자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촛대바위, 왼쪽으로 가면 남대문바위이다. 촛대바위는 동해 추암해변의 그것처럼 촛대 비슷하기도 하고 사람의 손가락 같기도 한 모습이다. 삼형제바위에서 촛대바위에 이르는 해안은 무인지대이고 촛대바위 뒤로는 깎아지른 해안절벽 지대이다. 남대문바위는 물이 빠져나간 간조 때에만 접근할 수 있는데 거대한 암석 한가운데에 구멍이 뽕 뚫려있어 울릉도의 공암을 연상케 한다. 바위모양이 남대문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다는데 멀리서 보면 코가 뚫룩한 어느 동물을 닮은 듯도 하고, 코끼리 모양 같기도 하다. 남대문바위의 왼쪽편으로는 부채바위가 있다.

소이작도 손가락바위

손가락바위는 소이작도 큰마을 뒤편 끝에 있는 바위로서 검지손가락을 하늘을 향해 뻗치고 있는 모습이다. 손가락바위까지 가는 산책로는 작은 돌맹이들이 깔린 콩돌해변이 있다.

갯바위 낚시 포인트

- 백령도** - 하늬, 고봉포구, 어릿골, 사향포구, 두무진포구, 화동포구, 용기포구, 두세
- 대청도** - 선진포선창, 물량장, 검은낭, 독바위, 강난두, 사탄동선창
- 연평도** - 당섬, 안목선착장, 대진동아이스크림바위, 거문녀, 용뒤, 서강무르, 모니도
- 덕적도** - 진리선착장, 서포리선착장, 아래골, 큰이마, 작은이마, 능동자갈마당, 소재해안, 이개목섬
- 북도** - 신도2리 양어장 앞, 시도박절, 시도~모도 연육교, 웅암선착장, 장봉큰야달, 장봉가막머리
- 자월도** - 선착장 주변, 동양콘도 주변, 사슴개, 먹통도앞, 하늬곶앞, 목섬방파제 앞, 참나무굴 앞
- 영흥도** - 십리포해안끝, 농어바위, 갯이부리, 사매기, 측도

신토불이 먹거리, 천연 머드팩... 이게 바로 웰빙 피서

팜스테이(Farmstay)는 시골 농가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치 좋은 곳에서 구경만 하고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직접 농촌생활을 겪어보는 입체적인 농촌체험프로그램이다. 도심에 사는 아이들이 흔히 접해 볼 수 없는 농촌과 어촌 생활을 체험하면서 책에서 배웠던 식물을 익히고, 직접 농사도 지어본다면 피서도 하고 학습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산촌에서 감자캐기 _ 강화 아침가리마을

98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시작해 온 이래 99년부터 팜스테이를 시작한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 아침가리마을은 인근에 강화환경농업농민회에서 운영하는 환경농업교육관이 있어 아이들이 제대로 된 환경교육과 농사체험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6월 어느날. 산 속에 파묻힌 듯 고요하기만 한 시골 마을이 아이들의 재잘거림으로 떠들썩하다. 170여명의 고등학생이 강화 농경문화관을 둘러본 후 아침가리마을에서 농사체험을 했다.

또 어느 토요일엔 시민단체가 주관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40여명의 초등학생과 학부모 10여명이 팜스테이를 하며 하룻밤을 보냈다. 오후 느즈막히 아침가리마을에 도착한 이들은 준비된 저녁식사를 마친 후 곧바로 감자캐기에 들어갔다. 고작해야 아파트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의

흙을 만져보는 것이 전부였던 아이들은 처음엔 손에 흙이 묻을 새라 조심스러웠지만 어느새 얼굴에까지 흙을 묻히며 저마다 하나라도 더 감자를 캐느라 야단이다. 늦은 저녁. 아이들 손으로 캔 감자가 캠프파이어 장작불 속에서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노오랑게 익어간다. 즐거운 놀이와 함께 신토불이 감자를 간식으로 먹는 아이들은 얼굴에 그윽음이 묻는 것도 모른채 마냥 즐겁기만 하다.

다음날 아침 아침가리마을 뒷산으로 가벼운 등산을 다녀온 아이들은 미리 준비해놓은 황톳물들이기에 푹 빠진다. 손수건에 황톳빛 물을 들이는 아이, 티셔츠에 물을 들이는 아이... 모두들 천연염색을 한 작품을 누구에게 선물할까 고민하는 표정들이다.

황톳물들이기를 마친 아이들은 준비된 도시락을 들고 황산도갯벌로 씩씩하게 나간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강화의 갯벌에서 아이들은 소라, 고둥을 잡으며 천연머드팩으로 멧쟁이가 된다.

포인트 _ 아침가리마을은 4개 농가가 팜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민박집이 취사시설과 욕실을 갖추고 있다. 민박 비용은 독채는 7만원~9만원, 작은 방 하나는 4만원 정도이다. 감자캐기 체험에는 1인당 5천원의 비용이 든다. 최남순(937-4922, 011-9141-4922), 조광농원(016-629-4693), 황토전원민박(937-4957, 019-314-4957), 산너울민박(937-4916, 011-463-4916)

찾아가는 길 _ 강화대교 지나 경찰초소에서 좌회전(역사관방면)→더리미힐집촌→화도돈대(아침가리마을 이정표)→불은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따라 계속 2km 정도 직진하다가 언덕을 넘으면 아침가리마을회관(고능리버스정류장)이 보인다.

포도익는 섬 _ 장봉마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멀지 않은 섬, 장봉도에는 영농체험과 바다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봉마을이 있다. 장봉마을의 아홉 가구에서는 감자나 고구마, 고추 같은 농작물을 심고 캐는 농사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장봉도는 섬포도로 유명한 곳이다. 덕분에 포도봉지 씹우기처럼 과수원에서나 해볼 수 있는 체험도 가능하다.

서해 앞바다에 자리잡은 섬이라 갯벌체험은 기본이다. 후끈거리는 지열을 받으며 감자를 캐고 포도봉지를 씹은 아이들은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캐고 고동이나 소라를 줍기도 하고 망둥어 낚시를 즐기면서 바닷바람에 땀을 식힐 수 있다.

게다가 민박집에서는 고구마, 포도, 포도즙 등 주인이 직접 농사지은 농작물을 판매도 한다. 내 눈으로 확인한 농작물이니만큼 믿고 살 수 있는 것은 장봉마을에 묵으면서 얻을 수 있는 덤이다.

포인트 _ 장봉마을에서 민박을 하려면 취사도구를 챙겨 가야 한다. 기본요금은 4인가족 기준으로 5만원 내외이다. 성진농원(746-8003, 017-312-8003) 신성(751-8078) 이가네(751-8059, 016-318-8059) 포도나무집(752-8102, 011-6556-5403) 코끼리(751-0921, 011-9131-6576) 신촌(751-9500, 016-262-8812) 3리(751-8093) 오늘(752-3919, 011-759-3919) 서울자연농원(752-8877, 011-9149-8855) 건희네(752-9215, 011-378-9215)

찾아가는 길 _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타고 영종대교를 건너서 10여분을 달리면 첫 번째 나들목에 무의도, 을왕리라는 이정표가 나온다. 여기서 빠져나와 공항북로를 달리다 삼목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삼목선착장이다. 삼목선착장에는 신도를 거쳐 장봉도로 가는 배(배편문의 : 884-4155)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여름철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한 시간에 한번 꼴로 배가 뜬다. 배 값은 소형차 기준으로 10,000원 운전자 이외의 승객은 1,500원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동인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버스(111-1)를 타고 삼목사거리에서 내려 삼목선착장에 닿는다. 장봉도에는 마을버스가 배시간에 맞춰 다니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큰 불편은 없다.

우리 소리에 젖어보는 _ 강화 용두레마을

강화군 내가면의 용두레마을은 산과 바다 그리고 돌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용두레마을에서 팜스테이를 하게 된다면 강화 특산물인 순무김치만들기, 경운기 타보기 등 농촌생활을 체험해 보는 것은 물론 벼농사체험, 감자·고구마 캐기 등의 농사체험도 손쉽게 할 수 있다. 마을에서 경운기를 타고 5분만 나가면 강화 갯벌이다. 그곳에서는 갯벌 맛사지, 서해낙조 보기, 갯벌생물 관찰하기 등의 갯벌체험을 다양하게 해 볼 수 있다.

특히 용두레마을은 시선뱃놀이, 용두레질 노래 등 강화 전통의 풍물놀이와 전통 가락이 전해 내려 오는 곳으로 전국 민속경연대회에서 용두레질 노래가 대통령상, 성터다지기 노래가 각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한 유서 깊은 곳이다. 여름철 용두레마을에서 팜스테이를 하는 가족이 많을 경우에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분들이 직접 용두레질 노래, 시선뱃놀이, 성터다지기 노래 등을 시연해 전통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강화역사관, 고려궁지 등 유적지를 탐방하고 강화 역사를 알아보는 것은 강화에서만 할 수 있는 덤이다.

포인트 _ 여름에 농사체험으로 고구마, 감자캐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확체험에 참가하려면 1인당 5천원의 체험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캔 고구마와 감자를 3kg까지 가질 수 있다. 취사도구는 준비돼 있다. 민박비용은 방 하나에 3만원 내외다.

마을이장 배광혁 (011-9038-6753, 932-6753) 고종혁 (932-6757) 한상건(932-9719) 최석(932-6755) 조병은(932-6707) 조병윤(932-6760)

찾아가는 길 _ 강화대교를 건너 알미골 삼거리에서 좌회전해서 84번 지방도로를 탄다. 찬우물 삼거리에서 우회전해 인산삼거리에 닿은후 다시 우회전을 하면 외포리 선착장이다. 용두레마을은 외포리선착장에서 멀지 않다. 해안도로 타고 5분거리에 있다.



강화에서 팜스테이하며 2박3일 보내기 예

첫째날 _ 강화 도착 - 강화역사관 둘러보며 역사공부하기 - 숙소 도착, 신토불이 점심 - 가까운 갯벌에 나가 아이들은 동족 잡고 엄마는 머드팩 - 저녁 식사 - 장작불에 감자 구워먹기 - 풀벌레소리 들으며 숙소에서 1박

둘째날 _ 텃밭에서 갓 뜯어온 상추와 오이로 보리밥 아침 - 텃밭에 나가 오이 따기, 감자캐기 - 점심도시락 준비 - 근처 해수욕장에서 수영하기 - 숙소에서 1박

셋째날 _ 곤충박물관둘러보기 - 쉬엄쉬엄 귀가하기



시원한 여름이 시작되는 인천으로 오세요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경인전철, 인천지하철 그리고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고속도로. 인천으로 오늘 길은 다양하기만 하다. 수도권에서는 대중교통만으로도 쉽게 인천에 올 수 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도 반나절이면 인천에 닿는다. 팔도각지에 사는 모든 사람, 나아가 세계인에게까지 그 품을 활짝 열어 놓은 인천. 인천에서 시원한 여름이 시작된다.

전철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놓인 곳이다. 지금은 인천역에서 경기도 북부의 의정부역까지 경인전철이 연결되고 있다. 지방에서 기차를 이용해 인천으로 오는 사람은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서 인천행 전철로 갈아타면 된다. 새로 개통된 고속철도를 이용한 이들은 용산역에서 인천행 전철을 이용할 수 있다. 인천 안에서라면 인천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다. 북으로는 굴현, 남으로는 동막역으로 뻗어있는 인천지하철은 경인전철 부평역과 연결된다.

자동차 길 서울과 인천을 이어주는 가장 빠른 자동차 길은 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다. 서울중심부나 여의도, 양천구, 강서구 등에서는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인천항까지 쉽게 닿을 수 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남쪽 외곽지역에서 인천으로 오는 빠른 길이다. 서울 오류동에서 부천-송내-부평-동암을 지나 인천에 닿는 경인국도도 전통의 도로이다. 근래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는 차가 많아졌다. 올림픽대로는 김포IC에서, 서울외곽도로는 계양IC나 서운IC를 이용해 인천에 들어올 수 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창JCT에서, 경부고속도로는 신갈JCT에서 신갈-안산고속도로로 갈아탄 뒤 다시 서창JCT에서 인천으로 이어진다. 영동고속도로는 신갈JCT를 지나 신갈-안산고속도로를 탄 뒤 서해안고속도로를 거치면 서창JCT에서 인천으로 연결된다. 중부고속도로는 하남JCT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갈아타고 일산방면으로 달리면 성남, 판교, 평촌, 산본을 지나 안현JCT에서 제2경인고속도로로 바뀌 달 수 있다.

시외버스 인천의 새로운 중심지에 자리잡은 인천터미널은 전국에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로 인천을 연결하는 곳이다. 광주, 남원, 대구 등 12개 도시는 고속버스로 인천과 연결되고 시외버스로 승객을 인천으로 실어나르는 노선도 40여개에 이른다.

연안부두까지 가기 경인전철 인천역에서 28번, 동인천역에서 12, 24, 28번, 도원역에서 14번, 제물포역에서 36번을 타고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앞에서 내린다. 지방에서 버스로 인천터미널에 도착한 경우에는 터미널 맞으면 킴스클럽 앞에서 시내버스 36, 64번을 이용하면 연안부두에 닿는다. 승용차로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종점 사거리에서 50m 직진해서 좌측으로 800m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해 2km를 달리면 된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종점에서 계속 직진하다 보면 8차선 도로를 달리게 된다. 2km 쯤 달리면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사거리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좌회전하면 바로 해양광장이 나타난다. 거기서 200m 쯤 가면 여객터미널이다.



■ 연안부두 ↔ 섬 (7월 1일 기준)

노선	선편	연안부두발	기항지발	소요시간	요금(연안부두발 성인기준)	문의전화	비고			
연안부두↔백령도	데모크라시5호	07:40	12:40	4시간	43,700	온바다 884-8700 진도운수 888-9600	연안부두 → 소청도 → 대청도 → 백령도			
	컨티넨탈호	12:10	07:10							
	아일랜드호	07:10	12:10							
연안부두↔대청도	데모크라시5호	07:40	13:00	3시간30분	41,700	온바다 884-8700 진도운수 888-9600				
	아일랜드호	07:10	12:30							
연안부두↔대연평도	실버스타	매일변경	매일변경	4시간5분	26,400	진도운수 888-9600 888-0417, 0418	차량승선			
	오uckland	11:30	13:45	2시간	34,500					
연안부두→자월도 →이작도 →승봉도	파라다이스 (평일)	09:30 15:00	11:00(승봉발) 16:20(이작발)	50분~1시간	15,500(자월도) 16,900(이작도)	우리고속훼리 887-2891~5				
	파라다이스 (주말)	09:30 12:30 15:30	11:00(승봉발) 14:00(승봉발) 17:00(승봉발)		17,450(승봉도)					
		프린세스 (평일)	09:30 15:00		10:40 16:10			17,500	우리고속훼리 887-2891~5	
			프린세스 (주말)		09:30 13:30 16:00					
연안부두↔덕적도	프린세스 (주말)			08:30 14:30	09:45 15:45	50분	14,150			
		골든진도호	08:10/13:10	10:30/15:10	2시간	11,000				
	연안부두↔무의도	프린세스 (평일)	08:20	08:50 17:10(파라다이스) 17:50(파라다이스토요일)	1시간	8,900	우리고속훼리 887-2891~5			
		파라다이스 (일요일)	08:20(프린세스) 12:30	08:50 14:40						

※퍼서철 성수기 배시간은 수시로 변경됩니다.이용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온바다의 경우 7월 16일 카페리호가 새롭게 취항할 계획이라 배편이 늘어나고, 퍼서철을 맞아 요금도 할증됩니다.

- 연안부두↔백령, 대청 선편문의 : 온바다해운 (884-8700), 진도운수 (888-9600 www.jindotr.co.kr/)
- 연안부두↔연평 선편 문의 : 진도운수 (진도운수 888-9600 www.jindotr.co.kr/)
- 연안부두↔무의, 영흥, 자월, 이작, 승봉, 덕적도 선편문의 : 우리고속훼리 (887-2891 www.urief.co.kr/)

강화까지 가기 서울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이용 김포나들목 (김포IC)에서 김포·강화방면으로 진출해 48번 국도를 탄다. 강화 방면으로 김포시청→마송→강화대교를 건너면 된다.

88올림픽 도로를 이용할 경우 올림픽도로의 끝에서 김포, 강화 가는 길을 따라 좌회전 한 후에 첫 번째 분기점에서 우회전하여 제방 도로를 따라 가거나 (두 번째 분기점은 매표지 도로임) 3번째 분기점에서 48번 국도로 바뀌 타고 계속 직진하면 강화대교를 지나 강화도에 도착한다.

■ 강화 ↔ 섬 (7월 1일 기준)

출발지	도착지	강화발	기항지발	소요시간	요금(성인기준)	문의전화	비고
외포리	석모도 (석포리)	07:00~20:30 수시운행	07:00~20:30 수시운행	10분	600 승용차 7,000	삼보해운 932-6007	
창후리	교동도 월선포	07:30~19:00 수시운행	07:30~19:00 수시운행	15분	750 승용차 12,000	화개해운 933-3212	
선수(화도)	인내(삼산)	07:30~18:00 수시운행	07:30~18:00 수시운행	15분	600 승용차 7,000	삼보해운 937-6017	
외포리 (남방항로)	서도면 (주문도)	09:30 16:00	07:30 13:00	1시간40분	불음도 5,300 주문도 6,200 승용차 (1500cc이하) 25,000	삼보해운 932-6007	외포리→ 불음도→아차도 →주문도

- 외포리↔석모도, 주문도, 불음도 선편 문의 : 삼보해운 (932-6007, www.kangwha-sambo.co.kr/)
- 창후리↔교동도 선편문의 : 화개해운 (933-3212, www.hgma.co.kr/)
- 선수리↔석모도 보문사 선편문의 : 삼보해운 (932-6007, www.kangwha-sambo.co.kr/)

‘최고 품질도시’ 향해 순항 중

민선3기호가 출항한지 2주년이 됐다.

지난 2년은 취임 후 열정을 갖고 착수했던 각종 시 사업의 실행계획을 착실히 실천한 결과

경제·문화·복지·환경 등 각 분야에서 큰 결실을 거둔 기간이었다.

2년의 족적이 남긴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무엇보다 정부의 21세기 국가생존전략인 ‘동북아국제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계획’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및 공포되어 국제도시로 성큼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 또한 국제공항과 항만, 송도정보화신도시 등 인천이 갖고 있는 풍부한 발전여건과 국내외적 변화를 고려해 21세기 인천의 비전을 정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천미래발전계획’을 수립했다.

미래발전계획을 뒷받침하는 한편 일 중심의 생산적·효율적인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행정수요진단과 1차 조직개편’을 단행한데 이어 인천을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대대적으로 전개할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해이기도 했다.

한·중 수교10주년을 맞아 양국간의 우호관계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천-중국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한·중·일 3개국 10개 연안도시가 참여한 ‘동아시아 시장회의’를 개최한 것은 물론 환황해지역의 물류·관광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창설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 위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 그리고 ‘복지·문화·환경·지식·국제도시’ 건설의 5대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하나로 모은 기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국 최초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 _ 2003년 8년 11일 ‘송도·영종·청라’ 지구가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196억 달러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고 시립인천대의 송도이전 및 국립화를 적극 추진했다.

구도심권 균형발전 추진 _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로 인해 나타날 각종 파급효과를 구도심지역으로 흡수하고 구도심지역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구도심권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했다. 인천내항을 거점으로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을 축으로 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중점전략추진사업을 선정, 민선 3기 후반 2년 동안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군·구를 특색 있고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한 군·구 특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도시의 위상 정립 _ 시민의 힘을 모아 인천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FC’를 출범시킨 것을 비롯해 국제여자테니스첼린저대회 등 굵직한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치러냈다. 학익동 윤락가를 지역주민, 중앙부처, 교육청, 경찰청과 함께 노력해 올 하반기에 완전 철거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특정지역 대표자를 직접 설득해 자진 폐쇄하는 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우리민족대회 개최 _ 지난 북한 용천폭발참사 시 북한주민 돕기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 우리시가 대북한 경험사업의 교두보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물론 북한 개성공단 개발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등 북한과 교류의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6월에는 인천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4돌을 기념한 우리민족대회를 민·관이 합심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우리 인천은 민선 3기 출범 뒤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역동적인 변화를 주도해 왔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변방으로만 인식되던 인천이 이제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민선 3기 2년 동안 많은 시민과 각계 각층에서 보여준 단합된 힘과 적극적인 참여가 맺은 결실이었다. 현재 전국의 4.8%(28조 2,544억원, '02.12.31기준)인 인천의 GRDP가 2008년 이후에는 10%로 신장되고, 경제자유구역건설에 따른 전후방 유발효과로 매년 GRDP의 1% 상승과 함께 0.2% ~ 0.3%의 실업률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민선 3기 후반은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함께 친환경적 도시개발의 추진,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중심도시, 인천』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복지도시 실현을 위하여



참여복지 실천과 삶의 질 향상 _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환경지킴이 사업과 경로당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했다. 장애인의 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50명상의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4개소의 확충을 추진했다.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세유지구·이동기기를 보급해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른 무의탁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4,522명을 대

상으로 119자동 호출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참여를 위해 지난 6월 1일 '여성의 광장'을 개관했고 '인천여성개발센터'를 지난 4월에 설립·운영 중에 있다.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자원봉사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3개 지역에 청소년 문화 Zone을 지정,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했으며 4개 부문별 자원봉사 조직의 D/B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_ 지방물가관리를 적극 추진한 결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3.2%(전국 평균 3.6%), 지방자치단체 관리 개인서비스요금 상승률 2.1%로 전국 최저를 기록해 금년 5월 물가안정 최우수 자치단체 대통령 표창(재정부 주관)을 수상했다. 2004년을 인천 수출 100억불 달성 원년의 해로 정하고 1,135개사에 대한 수출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 노·사·정 한마음 동반대회를 비롯해 노동단체 지원(2개 단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노사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인천 지역 외국인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해 강화방조제 포락(浦落)공사를 시행, 강화도내 25.2ha의 경작지에 대해 태풍 및 해일로부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과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 전자경매시스템의 도입을 완료했고 하역기계화 및 물류 효율화에 따른 비용절감 유도, 삼산도매시장의 주변도로망의 확충으로 편리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편리한 이동 _ 기존 교통시설에 대해 교통공학적 원리와 기법을 적용해 상시정체지점인 9개축 29개 교차로의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주요 간선도로 51개축에 대해 2008년까지 차로 폭을 도로여건에 맞도록 조정해 도로이용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본토대를 구축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항 100주년 기념탑 4거리 외 51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물을 확충했다.

2. 문화도시 창조를 위하여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국제문화도시 인프라 구축 _ 인천 개항기 근대건축물을 리모델링해 향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Festival Town을 200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아 해외 교포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이민사박물관 등 군·구별 테마박

물관 9개소를 건립한다. 아울러 첨단 정보시스템을 갖춘 도서관을 1군·구별 1개 도서관 확충을 목표로 총 17개관을 건립하는 등 2008년까지 1,107억원을 투입, 문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구축키로 했다. 강화군 강화읍 일원에 24,821km²(750만평)규모로 강화읍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해 국제적인 체험형 역사박물관 도시로 개발하는 한편 중구 북성동 일대의 36,000m²(1만평)을 차이나타운으로 재정비해 구도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올 11월까지 인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인천예술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프로젝트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본인프라 구축에 진력하고 있다. 더불어 문화유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수준 높은 문화유적관광을 위해 문화유산해설사 50명을 양성해 운영 중에 있다.



동북아 중심도시 인천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관광자원화 _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해양축제를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 발전시키는 한편 동북아 허브공항을 향해 발돋움하는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2004 인천하늘축제를 금년 10월 개최한다.

국제적인 스포츠 도시 육성 _ 2002 한일월드컵 16강의 신화를 이룬 인천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 인천그랑프리 국제펜싱선수권대회(2003년)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2005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와 국제체육교류도 4회 추진했다. 올해엔 인천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기념 일본클럽팀 초청경기 등 국제대회 5회를 개최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적 스포츠 도시인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3. 환경도시 지향을 위하여

쾌적·건강한 환경 친화도시 조성 _ 마을쉼터 조성, 학교주변 녹화,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공단주변 환경정화수 식재, 하천변 녹화사업, 시가지 및 방음벽 녹화사업, 공원·녹지조성 및 산림녹화 등 도심지 녹화사업을 통해 체감 녹지율을 높이고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 등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아울러 수목지원 및 나무 나누어주기, 나무은행 운영, 나무시장 개설 등 자율참여 기반 조성에 노력한 결과 담장 및 생활권 주변 공원 등에 나무심기 사업이 당초 계획대비 158%의 성과를 거둬 276만 본의 나무심기를 통해 녹지공간을 조성했다. 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도심지내 휴식공간과 생활권 주변 공원을 확충하기 위해 인천대공원 등 8개 공원에 총 사업비 6,274억원을 투입, 레포츠 공원 등의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수목원 및 산림욕장 조성 _ 2006년까지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인천대공원 내에 도시녹화식물원, 희귀자생·비교식물원 및 사계절 활목원 등의 테마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도심지내 유희지, 신축 건물에 대한 녹화사업 등 2006년까지 25만 본의 나무심기를 통해 녹지 공간 확충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또 계양산에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4월 22일에 산림욕장을 개장했다.

생태관광지 개발 _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일대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국의 철새(저어새)를 보호하고 관찰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와 관광객들에게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을 심어주는 강화갯벌 생태관광지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감할 수 있는 환경종합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8,497평 규모에 총 사업비 19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올 12월까지 갯벌센터 및 갯벌생태관광지 조성할 것이다.

4. 지식도시 구현을 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도시 구현 _ 인천시립대학교 도화동 캠퍼스의 구조적인 열악함을 해결하고 도화동 일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대의 송도이전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립화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시립인천대의 국립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또한 애향심과 지역소속감을 고취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인천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인천사랑운동협의회에 107개 단체 35,221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4월과 5월에 인천사랑운동협의회의 발

기인 대회와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인천사랑지도자 아카데미’, ‘생활문화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인천Cyber City Center’를 통해 63회 27,000여명의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했고 시민정보체험관에 33,750명이 방문하는 등 명실 공히 ‘시민정보화교육의 장’ ‘인천IT의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지식행정화에 박차 _ 민생현장의 불편·불만사항과 주민 간 이해대립·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위해 ‘시민감사관’ 86명이 군·구 정기 감사에 6회에 걸쳐 22명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넓히고 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은 물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도 크게 기여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등 기구직제를 일원화하는 한편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해 정원을 조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합리적 개발과 운영을 위한 기구 및 정원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지방화, 분권화시대에 맞는 시정평가 기능강화를 위해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로 이원화된 평가기능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했다.

편리하고 투명한 디지털 도시 _ 상·하수도, 도로, 녹지 등 4개 분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공간정보 디지털화를 위한 ‘도시정보시스템(UIS)’을 적극 추진했다. 2003년 4월 이후부터는 1억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 수의계약 한도 금액을 1천만 원까지 대폭 하향하는 ‘전자견적 입찰제’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2004년 6월말 현재 971건에 196억원의 입찰실시로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업체의 시간 및 비용 등의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활동의 편의를 제공했다.

5. 국제도시 건설을 위하여



기반조성사업 _ 항공물류·첨단산업관광단지 개발될 영종지구는 지난해 10월말 송도 국방시설의 이전 추진과 함께 공영개발방식도 무난히 해결되어 개발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운북동 지역에 국내외 화교자본 20억불을 유치해 개발하게 될 ‘차이나시티 조성사업’을 위해 2004년 3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용유·무의도 일원 213만평에 개발하게 될 ‘용유·무의 관광단지’도 개발사업 시행자였던 CWKA사와의 소송을 마무리 짓고 2004년 6월

조성계획수립 용역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국제업무·지식기반산업·R&D센터로 개발될 송도지구는 1·2·4공구 306만평의 매립을 완료하고 3공구 77만평의 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5·7공구 198만평의 매립설계를 추진 중에 있다. 도로, 교량,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반시설공사도 착실히 추진되어 지식정보산업단지, 테크노파크, 국제비즈니스센터, 첨단바이오단지 등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시대의 도래와 중국의 급성장 등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역혁신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지난 97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7,191평의 송도테크노파크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금년 7월에 협약을 체결, 10월에 입주할 ‘국방벤처센터’의 설립 및 유치를 추진했다. 금융·국제업무·관광·레저중심으로 추진될 청라지구는 2003년 7월, 농업기반공사의 화훼단지 개발계획 연구용역 추진과 2003년 12월 한국토지공사의 청라지구 조사설계 용역 착수 등으로 개발사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

도시인프라 구축 _ 편리하고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한 접근체계 구축을 위해 제2연육교,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건설을 200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지하철 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 등의 광역철도망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해 왔다. 비즈니스 경쟁력을 갖춘 국제경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품질의 조기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이라는 인식하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국고의 확보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계한 Sea&Air 복합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운 및 항공물류기능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2004년 1월에 교통개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18선석 규모의 북항개발과 12선석 규모의 송도신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송도신항의 민자개발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27일에 P·H컨소시엄과 15억불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선진적인 Sea&Air 복합물류체계를 갖춘 항만의 효율적 운영과 항만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인천항만공사제(IPA)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_ 우리 인천을 경제자유도시, 국제도시 수준에 걸맞게 발전시키고 경제자유구역의 파급효과 흡수를 위한 구도심권 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해 서구 가정오거리 주변지역을 뉴타운으로 개발하는 한편 경인고속도로를 직선화하여 도시공간 구조의 개편과 함께 서울, 가정오거리, 청라지구, 인천공항을 잇는 경제벨트 구축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강화를 꾀하고 있다.

굿인cheon 굿뉴스

AMEC사, 투자유치 MOU 체결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제2연육교 건설사업의 시공사사인 영국의 AMEC社와 재정경제부가 지난 4월 26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공항 북측 국제업무지구(120만평) 일대의 개발에 관한 20억불 규모의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AMEC사는 인천공항 북측 국제업무지구(120만평, 유수지 포함) 일대에 문화, 관광·레저, 업무, 주거시설 등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재원 20억불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이 지구에는 2010년까지 국제업무단지, 호텔, 공연장, 워터파크(수족관, 해수온천) 등 레저 시설과 고급 주거시설, 외국계 학교 등이 들어선다.

AMEC사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Oil & Gas, Transport, Infrastructure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로 40여개 국에서 약 4만5천명을 고용하고 있다.

문의 _ 경제자유구역청 공보관실(450-7026)

대체에너지이용 태양광발전설비 준공

무공해 청정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설비가 지난 6월 19일 준공됐다. 우리시는 미래형 대체에너지의 보급과 홍보에 앞장서기 위해 남동정수사업소와 수산정수사업소 2곳에 30kW급 태양광발전설비 2기를 준공했다. 이번 발전설비의 준공으로 연간 1천만원의 전력비 절감이 예상된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미래형 에너지인 풍력과 소수력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체에너지의 발굴 및 보급에 주력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경제정책과(440-2884)

2005년도 예산정책 시민종합토론회

우리시는 200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정책 시민종합토론회를 지난 6월 23일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2005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예산의 실질적 수요자인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함과 동시에 재정운영의 합리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2005년도 예산편성과 시정업무에 최대한 반영된다.



문의 _ 시 예산담당관실(440-2193)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개소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 6월 10일 한미은행 빌딩 9층에 문을 열었다. 인천시 관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종합 지원하는 기구인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현재 각 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활후견 기관에 대한 종합지원과 저소

‘시민의 목소리’ 듣는 월례조회



제2연육교를 안전하게 시공해주고 아울러 인천의 명소로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서영길(남·계양구 계산동·개인택시)씨는 좀더 친절하고 편안한 공무원상과 너무 의리없는 구청건물의 효용성에 대해 질타하고 또 내·외국인이 찾아갈 수 있는 관광명소를 만들어 줄 것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참석한 공무원들은 전화나 문서로만 민원을 접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직접 듣는 시민의 목소리에 좋았다는 반응. 또 가능한 이런 자리가 꾸준히 지속되길 희망했다. 아울러 이날 조회에서는 ‘공무원행동강령규칙’ 공포 1주년을 맞아 시 공무원들 스스로가 청렴유지와 부패방지를 위한 실천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문의 _ 시 총무과(440-2529)

“동막갯벌에도 휴식년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요?” “공무원들이 좀더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6월 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조용히 울려 퍼졌다.

공직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가진 이날 월례조회는 공직자들만의 조회가 아닌 공직자들에 대한 친절과 환경, 복지, 교통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꾸며지지 않은 시민들의 생생한 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전국 최초로 마련된 이날의 월례조회에서 처음 발표자로 나선 문경숙(여·남동구 만수3동·가정주부)씨는 동막갯벌 휴식년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비롯해

득층에 대한 창업 및 취업지원사업을 전담하며, 지원사업과 더불어 자활관련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다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문의 _ 시 사회복지과(440-2925)

월미공원조성 공사 착공



지난 6월 11일 오후 월미공원조성 공사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착공되는 월미공원조성 공사 사업에는 총 16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07년 3월에 준공예정이다. 공원 안에는 한국 전통 정원지구에 궁궐정원(부용지·애련지), 별서정원(국담원·소쇄원), 민가정원(원두막·정자·양진당·초가집)이 들어서며 주변지구에는 숲속의 쉼터 및 전망데크가 조성된다.

우리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월미공원조성 사업을 시작, 2006년까지 총 264억을 투자해 전통정원, 이민사박물관, 전망대와 자생꽃길,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문의 _ 서부공원사업소(297-4750)

계산역→공항신도시간 좌석버스 운행

인천지하철 계산역과 공항신도시간을 왕복하는 시내좌석버스 노선이 노선입찰제를 통해 신설됨에 따라 지난 6월 21일부터 운행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공항신도시와 계산역간 운행노선으로 인해 공항신도시 지역의 대중교통 불편사항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 또한 기존 좌석의 경우 3,000원에

포토시정

강화군 농업학교 특강



안상수 시장은 지난달 18일 오전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형 전문농업인의 비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특별 강연을 했다.

신미나토시 상공회의소 회장 방인



일본 신미나토시 상공회의소 야시마 유지 회장 일행이 지난 6월 17일 김창섭 정무부시장을 예방하고 두 도시간의 우의를 다졌다.

지역안정대책 실무협의회



지난 6월 11일 영상회의실에서 김동기 행정부시장 주재로 지역안정대책 실무협의회가 열렸다.

서 4,500원까지 부담하던 것을 1,500원으로 인하여 교통비부담도 줄어들게 되었다.

신설 노선의 신도시내 경유지는 신도시 입구→공항마트→주공10단지→공항전화국→주거단지→풍림6단지→운서중·고→신도시입구이다. 요금은 카드로 결제할 경우 성인은 1,500원, 중고생 1,100원, 초등생 750원(현금은 공히 2,000원)이다. 막차시간은 계산역 지하철 막차시간(24:21)과 연계된다.

문의 _ 시 대중교통과(440-3892)

편리하고 안전한 저상버스 운행 시작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이 시내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지난 6월 10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이번에 운행하기 시작한 저상버스는 만수동 수현부락에서 석바위~주안 사거리~제물포역~도화역~동인천역~인천역을 경유해 월미도 까지 운행하는 시영버스 15번 노선 2대이다. 또 6월 중순 부터는 연안부두를 출발해 웅진구청~동인천역~인천제철~송림동~인천의료원~진주아파트

~산곡중학교~백운역~부평역~갈산동~계산고교~계양경찰서를 운행하는 원진운수 24번 노선 1대와 금곡동을 출발해 검암동~연희동~서구청(구길)~가정5거리~경인여상~진주아파트~가좌주공아파트~십정동~동암역~간석5거리~길병원~농산물시장~종합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영풍운수 77번 노선에 1대가 운행되고 있다.

문의 _ 시 대중교통과(440-3882)

에너지절약기기 비교전시



우리는 최근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지난 6월 7일과 8일까지 이틀동안 ‘에너지절약기기 비교전시회’를 인천지하철 1호선 문화예술회관역 미추홀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에너지 절약 중합정보관, 대기전력관, 고효율 조명기기관 등 총 6개관으로 구성, 다양한 고효

율기기와 대체에너지 등 45개 품목이 전시됐다.

문의 _ 시 경제정책과(440-2883)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유치확정

산업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기술거래소가 시행하는 ‘지역기술이전거점 (Reg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구축운영사업’에 인천광역시 등 총 4개 자치단체(인천, 대구, 경북, 광주)가 신청해 평가한 결과 우리시가 1위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1일 산업자원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또 2001년부터 기술이전사업을 추진 중인 (재)송도테크노파크는 지역기술이전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4년간 산업자원부로부터 국비 820백만원과 인천시 지방비 400백만원을 지원받아 ‘중소기업기술이전지원사업’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문의 _ 시 과학기술과(440-2913)

공무원교육원 장애체험프로그램 운영

우리시 공무원교육원이 사회복지 관련 교육과정에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장애체험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참여한 ‘여성사회복지과정’ 공무원 대부분은 행정 일선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사회복지 분

야에 관심이 있는 교육생들이다. 장애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 30명은 지난 6월 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시 장애인복지관의 협조를 받아 연수구청, 동춘역, 롯데마트 등에서 직접 체험활동에 들어갔다.

문의 _ 시 공무원교육원(440-6211)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토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6월 2일 송도비치호텔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인천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주최하고 우리시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과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추진현황과 과제’라는 두 가지 주제로 학계와 경제단체, 기업체, 시 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문의 _ 시 산업노사지원과(440-2874)

인천광역시유망중소기업 선정

우리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관내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씨엠전자 등 18개 업체를 ‘인천광역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 6월에 선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선정업체에게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지원(금리, 지원한도 등)하고, 해외인증 및 규격획득 우선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산학연을 통한 기술지도 등을 통해 육성할 예정이다. 우리는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선정된 유망중소기업 100개소에 대해 자금지원 등 186개소에

230억9천1백만 원을 지원, 시설투자과 기술혁신을 통해 우수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문의 _ 시 산업노사지원과(440-2894)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 창립총회



제16회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가 지난 5월 28일 송도비치호텔에서 열렸다. 우리는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9월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육상경기연맹(AAA) 총회에서 17대 15라는 근소한 차이로 레바논을 누르고 유치에 성공했다.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아시아 육상 회원국간에 우호적이고 성실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2년마다 개최지를 정해 열리는 대회로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서울에서 제2회 대회가 열린 이후 30년만에 인천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제16회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내년 9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월드컵 16강의 성지 문학경기장에서 아시아 45개국 1,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43개 종목(남자 22개, 여자 21개)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_ 시 체육진흥과(440-1881)

2004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우리는 2001년부터 해외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센

티브 지급조건은 2004년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연간 500명이상 외국관광객을 인천 관내 숙박업소에 1박이상 숙박 및 음식점에서 식사(단, 숙박시설에서 식사는 제외하고 숙박한 관광객이 방문 기간중에 식사한 금액에 한함)하게 한 일반 여행사이다. 대상 여행사는 2004년 12월 10까지 유치실적 신고서, 숙박확인서, 식사확인서, 카드결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시 관광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여행사가 인천시에 제출한 유치 실적에 대해 해당 숙박 업소 및 음식점소의 확인을 거쳐 인센티브 지급범위를 결정하게 되며 1인당 숙박일이 2일 이상인 경우 1박만 보상을 하며 1인당 보상금은 2천원을 지급하고 식사비는 카드결제 영수증의 5%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문의 _ 시 관광진흥과(440-3317)

‘인천종합에너지’ 창립

송도신도시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합작투자법인 인천종합에너지(주)가 지난 6월 22일 법인설립절차를 거쳐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합작법인 인천종합에너지(주)는 한국지역난방공사 50%, 인천시 30%, (주)삼천리 20% 공동출자로 송도신도시에 열병합에너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2004년 6월에 한국지역난방공사(80억원)와 (주)삼천리(20억원)가 투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우리시에서는 올 10월경에 시의회의 출자 동의를 거쳐 송도신도시 4공구에 열원시설부지 1만831평을 감정가액 (약 160억원)으로 현물로 출자할 계획이다.

인천종합에너지(주)는 오는 2005년 4월부터 송도벤처빌딩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송도신도시 전역(예상 상주인구 25만명)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문의 _ 시 경제정책과(440-2883)

철마산 터널 개통



서구 석남동과 부평구 산곡동을 잇는 철마산 터널이 지난 6월 23일 개통됐다. 길이 2269m, 상하행선 각각 2차선의 쌍굴터널인 철마산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인천은 지난 2002년 4월 개통된 문학산터널과 함께 터널 2개 시대를 맞게 됐다. 7월 9일부터 부과되는 통행료는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차가 350원이고 일반 승용차나 32인승 이하의 승합차 또는 5.5t 이하의 화물차는 700원, 33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나 5.5t 이상의 화물차는 1000원이다.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지구 사업시행자 확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월 16일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내 공항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영종지역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최종 확정했다. 영종지역개발사업은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운남·운서동 일원의 시가화 조정구역 및 (구)택지개발예정지구로서 총 570만평 규모이며 한국토지공사가 90%,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10% 비율로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오는 7월부터 공동으로 항공측량 및 조사설계용역을 수행하고 개발구상을 재정립한 뒤 2005년중 재정경제부의 실시계획승인을 얻어 각각 독립 사업시행자로 분리·추진하게 된다.

문의 _ 경제자유구역청 공보관실(450-7026)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자연과 생명의 귀중함을 일깨워 주며 따뜻하고 기분 좋은 한편의 동화를 읽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해주는 가족극이다. 인간과 자연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정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며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나눔의 즐거움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컷가를 맴도는 아름다운 선율로 감동을 더해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 같은 가족극이지만 오히려 어른들에게 더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일시 _ 7월 24일, 25일 오후 2시, 4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일반 8,000원 / 할인 5,000원
예약 및 문의 _ 교육극단 보물상자 813-8040
 엔티켓(www.enticket.com) 1588-2341

영상이 있는 음악회



월트디즈니의 꿈과 환상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클래식 음악과 만난다. ‘눈으로 듣고 귀로 보는’ 팬타지의 음악세계가 펼쳐질 새로운 장르 〈영상이 있는 음악회〉를 통해 무한한 상상력의 극치를 맞볼 수 있을 것이다. 연주곡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베토벤의 ‘교향곡 제 5번 운명’ 등이다.

일시 _ 7월 7일, 8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7,000원 / 4,000원
예약 및 문의 _ 바로크 뮤직 438-6040

여성마당극 〈여자, 죽자, 살자〉



2003년 여성부에서 시행한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최근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 ‘호주제 폐지운동’에 동참한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기획된 마당극 형태의 작품이다. 할머니 한씨, 한씨의 딸 재숙과 경숙, 한씨의 외손녀딸 새봄이 등 딸들로 이어지는 모녀 3대의 이야기를 통해 남아 선호 사상, 남성 우월주의, 호주제도가 존재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한과 설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딛고 평등세상을 만들어 가는 당당한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자는 희망을 전달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일시 _ 7월 2일 오후 2시,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초대
문의 _ 남구청 880-4288

청소년 뮤지컬 〈로스트 키드〉



앞으로 무엇이 되겠다는 꿈도 목표도 없이 정형화된 시간표에 의해 수동적으로 생각없이 따라가는 아이들. 그들의 꿈을 뒤로 한 채 교육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사회적 혼란은 야기되고, 교육의 근본은 뒤바뀌고 있는 것을 고발하고 풍자하는 이야기이다.

무거운 주제와는 달리 공연은 밝은 분위기로 진행된다. 언어연극으로서 노래, 춤, 마임 등 동적인 장르를 특화시켜 무대는 화려하고 열정이 넘쳐난다.

일시 _ 7월 14~17 평일 오후 7시30분 주말 오후 3시,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10,000원 / 5,000원
문의 _ 극단 피어나 821-2235

젊은 국악



공연계에서 그 실력과 대중성을 인정받고 있는 성인 국악인과 국악 신동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연을 펼친다. 여민락, 오나라 등 국악합주를 시작으로, 소고춤과 함께 하는 선소리, 은율탈춤, 사물놀이, 판소리, 국악가요 그리고 잡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젊은 국악’은 일반시민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우리 음악이 가지고 있는 숨은 매력과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무대이다.

일시 _ 7월 20일 오후 7시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10,000원 / 7,000원 / 4,000원
예약 및 문의 _ 미추홀국악단 518-1511

2004 인천, 던져진 상황

제1회 인천광역시 각 군·구 미술인 초대전

‘2004 인천, 던져진 상황’이라는 주제 아래 연수구 미술협회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민간단체가 최초로 기획하는 4주 연속 전시이다. 남동구예술회, 부평구미술인회, 중구미술인회, 서구미술협회, 연수구미술협회, 강화미술협회 등 미술단체 회원들이 참여하여 만드는 미술 축제이다. 작품의 전시구성은 총 6개 군·구 200여 회원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매주 50여 작품 씩 전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미술인들과 지역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이고 지역의 작가들이 어떤 고민과 모색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는지 그 여정을 짚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시일정 _ 제1주 7. 3 ~ 7. 9 - “자연(自然)과의 만남 ”展Ⅰ
 제2주 7. 10 ~ 7. 16 - “회화(繪畵)의 방법적 모색”展
 제3주 7. 17 ~ 7. 23 - “자연(自然)과의 만남 ”展Ⅱ
 제4주 7. 24 ~ 7. 30 - “내면(內面) 형상의 새로운 조망”展
전시장소 _ 연수 갤러리(연수구청 의회 청사 1층)
문의 _ 연수구청 문화공보실

극단 동이 〈기적의 사람〉

헬렌 켈러의 자서전을 원작으로, 윌리엄 김슨이 희곡으로 옮겼으며 59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이 성공하면서 아서 펜 감독이 영화화하기도 한 작품이다. 어릴 적에 병으로 눈과 귀가 먼 헬렌 켈러, 그리고 그녀의 가정교사가 되어 찾아온 설리반 선생. 이 두 사람이 장애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린 연극이다.

일시 _ 7월 10일 까지 평일 오후 7시30분
 토·일·공휴일 4시, 7시
장소 _ 소극장 가온누리 (담동 가톨릭회관 옆)
티켓 _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단체 7,000원) / 단체(60명 이상) 5,000원
문의 _ 극단 동이 765-9756 / 764-7956



산이 있다 올라가자(박난양 作)

전시회

제2회 인·예·전
 7월2일~8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제2회 김용태 사진전
 7월2일~8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모임 '새빛' 20주년기념 사진전시회
 7월9일~15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7회 바다그리기 전시회
 7월9일~15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16회 인천2000년전
 7월9일~15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신언일·양승수 개인전
 7월16일~22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6회 그림벗전
 7월16일~22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제4회 풍경처럼 전시회
 7월16일~22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영화안내

터미널시네마
 (인천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지하1층)
 1관 〈스파이더맨2〉
 2관 〈나두야 간다〉
 일반 6,000원 학생 5,000원
문의 _ 430-7374 7377



동구청소년수련관 무료영화

7월 2일 : 어린신부(12세 관람가)
 7월 9일 : 원령공주(전체관람가)
 7월 16일 : 맹부삼천지교(15세 관람가)
 7월 23일 : 슈퍼1(전체 관람가)
 7월 30일 : 피노키오(전체 관람가)
일시 _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장소 _ 동구청소년수련관 2층 영상다목적홀
문의 _ 동구청소년수련관 (777-794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div><div>4</div><div>이주여성 문화행사</div><div>오후 2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440-2722</div><div>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div><div>오후 12시, 2시, 4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7,000원</div><div>02-322-7117</div></div>	<div><div>5</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div>6</div><div></div><div>오케스트라와 애니메이션을 위한 연주회 (~8)</div><div>11시 오후 1시 3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7,000원 4,000원</div><div>438-6040</div><div>어린이예술제</div><div>오후 7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868-9207</div></div>	<div><div>7</div><div>오케스트라와 애니메이션을 위한 연주회 (~8)</div><div>11시 오후 1시 3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7,000원 4,000원</div><div>438-6040</div><div>어린이예술제</div><div>오후 7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868-9207</div></div>	<div><div>8</div><div>강릉도 청소년음악회</div><div>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2,000원 5,000원</div><div>888-0808</div></div>	<div><div>9</div><div>제50회 미술을 즐기자 (약속) (~11)</div><div>금 오후 7시30분 · 토 오후 4시30분 7시30분 · 일 오후 3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0,000원 5,000원 / 815-0071</div><div>금요예술무대 <황태노영산 스물들군></div><div>오후 7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 무료 / 420-2717</div><div>사구공요예술무대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미당곡></div><div>오후 7시30분 / 사구문화회관 분수대광장 / 무료 / 583-2361~2</div></div>	<div><div>3</div><div>수더문서트</div><div>오후 2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초대 / 420-2722</div><div>김덕수의 울의소리</div><div>오후 4시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30,000원 50,000원 / 219-0327</div></div>
<div><div>11</div><div>메가 버블쇼</div><div>오후 1시30분 4시 6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35,000원 30,000원</div><div>1544-1954</div><div>어린이뮤지컬 <인어공주></div><div>오후 2시, 4시 / 사구문화회관 대공연장 / 8,000원 6,000원(할인) 5,000원(회원)</div></div>	<div><div>12</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div>13</div><div>제4회 호성주니어코랄 & 오케스트라 정기공연</div><div>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3,000원</div><div>501-6770</div></div>	<div><div>14</div><div>청소년뮤지컬 <로스트 키드> (~17)</div><div>평일 오후 7시30분 · 주말 오후 3시 7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0,000원 5,000원 / 821-2235</div><div>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div><div>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10,000원 7,000원 5,000원 420-2781</div></div>	<div><div>15</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div>16</div><div>틀리리넷 앙상블</div><div>오후 5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 무료</div><div>011-225-8477</div><div>환경뮤지컬 <웅크도개비> (~17)</div><div>오전 11시 오후 1시 2시30분 4시 / 개암문화회관 / 10,000원(일반) 5,000원(할인) 3,000원(단체)</div></div>	<div><div>17</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div>18</div><div>인물청소년교향악단 제4회 정기연주회</div><div>오후 7시 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888-0807</div><div>진국국악경연대회</div><div>오전 9시 / 개암문화회관</div></div>	<div><div>19</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div>20</div><div>경산향신들기 제4회 열린음악회</div><div>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10,000원</div><div>453-2350</div><div>미추홀국악단 <젊은국악></div><div>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4,000원</div><div>518-1511</div></div>	<div><div>21</div><div>제4회 인성예술고등학교 관 · 현악합주곡의 밤</div><div>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초대</div><div>433-0013</div><div>발림무용단 정기공연</div><div>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016-339-8712</div></div>	<div><div>22</div><div>송문회 · 이영신 Joint Recital</div><div>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0,000원</div><div>017-407-7005</div><div>사구공요예술무대 <구민과 함께하는 노래저녁></div><div>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10,000원 7,000원 5,000원 420-2784</div></div>	<div><div>23</div><div>금요예술무대 <댄스 스포츠></div><div>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 무료</div><div>420-2717</div><div>사구공요예술무대 <구민과 함께하는 노래저녁></div><div>오후 7시30분 / 사구문화회관 분수대광장 / 무료 / 583-2361~2</div></div>	<div><div>24</div><div>가죽극 <아침없이 주는 나무> (~25)</div><div>오후 2시 4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8,000원 5,000원</div><div>813-8040</div></div>
<div><div>25</div><div>누이친필하모니 창작별곡 및 교주초창연주회</div><div>오후 7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10,000원 5,000원 3,000원</div><div>888-0808</div></div>	<div><div>26</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div>27</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div>28</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div>29</div><div>KNB리틀필레단 창단공연</div><div>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초대</div><div>815-1225</div></div>	<div><div>30</div><div>남미전통음악 <자연의 영혼></div><div>오후 7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 무료</div><div>018-236-0074</div></div>	<div><div>31</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 공연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옥 상 영 화 제 후 기



여름은 그렇게 옥상에서 시작되었어

『나는 꿈을 꾸었죠 / 네모난 달이 떴죠 / 하늘 위로 올라가 / 달에게 말을 했죠 / 늦은 밤 잠에서 깨어 / 날개를 흔들었죠 / 오리는 날 수 없다 / 엄마에게 혼났죠 / 이제는 하늘로 날아갈래요 / 하늘 위 떠있는 멋진 달되고 싶어 ~』

그래, 맞았어.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 앞부분이야. 요즘 하루라도 체리필터를 듣지 않으면 뭔가 빠뜨린 것 같은 느낌이야. 그들의 상상력에서 나의 이성과 감성이 해방감을 얻는 듯 하거든. 그런 면에서 체리필터는 마그리프를 닮았다는 생각이야. 이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의 사물들을 재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고 전달하지. 그런데 이들의 상상력이 내 삶에서 체험으로 이뤄진다면 어떨까. 분명 멋지고 근사하겠지.

‘옥상 - 영화 - 주(酒) + 식(食)’을 배치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은 탈영토화되고 새로움으로 가득했지. 지난 달 10일에서 12일까지 스페이스 빔 옥상에서 진행되었던 ‘옥상영화제’를 통해서 말이야. 우리에게 ‘옥상’은 아득한 추억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 ‘옥상 - 엄마 - 장독’ 그런 배치가 아니었을까. 반면에 ‘영화’는 ‘영화 - 멀티플렉스 - 팝콘’으로 견고하게 계열을 이루고 있잖아. ‘주 + 식’도 마찬가지야. ‘주’는 ‘술집 - 노래방 - 2·3차’로, ‘식’은 ‘건강·영양 - 밥상’ 아니면 ‘식당 - 매일 규칙적인 3식’으로 영토화돼 있잖아. 이런 영토에 여기저기 구멍을 뚫어 절합을 통해 재배치하여 탈영토화할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재영토화 된 시공에서 ‘옥상 - 영화 - 주(酒) + 식(食)’은 새로움을 생산하고 있었어. 나아가 이들 각각도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던 거야. 3층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지상의 거리며 군중들은 내가 조금 전까지 발 딛고 있었던 일상의 공간이고 관계들이었지만 타자화되고 객관화되어 있었어. 반면에 오랜만에 고개 들어 바라본 밤하늘의 별과 달은 그대로 다가와 나와 하나되어 있었어. 그런 방식으로 영화도 음식도 그리고 그곳에 모여든 물상(物象)과 사람들도 새롭게 의미가 되고 있었어.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일상에서 체질화되어 있는 논리 중심의 사고가 유연해지기 시작하고 닫힌 감성이 빗장을 풀어헤쳐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탈영토화된 시공간에서 우리는 해방을 체험하고 소통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어. 그것은 우리 일상으로 날아든 행운이며 축제였어. 그래서 우리는 벌써부터 다음 기획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 그땐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

『내 두 눈 밤이면 별이 되지 나의 집은 뒷골목 달과 별이 뜨지요 / 두 번 다시 생선가게 털지 않아 / 서럽게 울던 날들 나는 외톨이라네 / 이젠 바다로 떠날거예요 / 거미로 그물 쳐서 물고기 잡으려 / 나는 낭만 고양이 ~』 체리필터의 또 다른 노래 「낭만고양이」를 듣고 있어. ‘고양이 - 생선 - 가게’에서 ‘낭만고양이 - 물고기 - 바다’로 탈주를 꿈꾸며.

글 _ 김성배(스페이스빔 운영위원)

사 이 드 정 보

연꽃 보며 수행, 선원사 논두렁 연꽃축제

강화도는 청련사·백련사·적석사 등 연에 관한 전설이 있는 사찰이 있을 정도로 연꽃과 친숙한 곳이다. 보통 7~8월 꽃을 피우는 연꽃은 불교에서 진흙 수렁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청정하게 피어난다고 해서 해탈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팔만대장경의 판각성지인 강화 선원면 지산리 선원사에는 그 연꽃지가 있다. 그 곳에서 지난해에 이어 제2회 선원사 논두렁 연꽃축제*가 7월 24일~8월 1일까지 열린다. 사적 259호로 지정된 팔만대장경 판각성지 앞 5,000여평의 연못에서 열리는 축제는 불교방송의 ‘배추머리 노래방’ 공개녹화 및 연꽃 전래에 대한 설명회 등이 열린다. 이와 함께 길놀이, 유품농법에 이용되고 있는 오리와 함께 하는 점심공양, BBS 불교방송 연꽃축제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돼 3일 동안 다채롭게 치러진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연꽃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다.

행사문의 _ 사무국(934-1400) 선원사(933-8484)





사 람 하 나 만 나 고 싶 다 · 일 곱 번 째 사 람

「바다 향기」와 자릿그물에 걸려 있는 노을빛 물결

김연용씨

‘선재도(仙才島)의 느린 바다에서 비누 냄새가 난다’. 상상일 것이다. 경사가 없이 평평하기만 한 개펄과 한번 나가서는 도무지 들어올 줄을 모르는 느리디 느린 선재도 물결에서 무슨 비누 향내가 날까. 길을 안내한 여자 때문일 것이다. 자릿그물에 걸려 있는 노을을 보여 주고 그 그물의 주인 김연용(金淵龍·29세) 씨 부자를 만나게 해 준, 마흔 살 조금 넘은 물빛 여자 때문일 것이다.

아니, 그 하얀 비누 냄새는 어쩌면 이 젊은 남자의 옆얼굴에서 나는 것일지 모른다. 그것을 바다가 흉내 내었을 것이다. 그렇다. 바다가 그걸 좇아, 회를 팔고 민박을 하고 「아버지의 바다」를 긴 나일론 끈에 묶어 붙잡아 둔 이 집 이름을 「바다 향기」라고 이름 붙였을 것이다.

바다 향기! 그것은 또 예순 세 살의 눈 먼 아버지와 함께 잘 생긴 젊은 아들이 슬픔처럼, 기쁨처럼 바라보는 고운 수평선 냄새일 것이다. 웃음 머금은 찔레꽃 향기. 자작자작 물이 썩 개펄 위에 비올라 모양의 그림자를 제 발 밑에 뉘어 놓은 채 전신에 노을을 묻히고 있는 측도(測島), 진공처럼 고요한 자세의 작은 섬 목도(木島), 그것들이 내는 푸른 냄새. 그리고 혼자 쓴살같이 개펄을 내달리고 있는 수놈 개, 몸 속에 골든 리트리버 종자의 피가 반쯤 흐르고 있다는 녀석, ‘바다’의 냄새일 것이다.

바다 향기는 바로 그 두 놈도 흉내를 내었다. 수놈이 ‘바다’, 그리고 암놈이 ‘향기’. 슬프게도 ‘향기’란 놈은 얼마 전 차에 치어 목도에 잠들어 있고 지금은 그렇게 수놈 ‘바다’만 남아 들물처럼 정중거리고 있는 것이다.

“처음 민박집을 준비하던 2001년, 근처를 찾는 행락객들에게 집 이름을 공모(公募)했었는데 어느 신혼 부부가 우리 집 이름으로 ‘바다 향기’가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아직 정식으로 문을 연 것이 아니어서 무료로 하루 숙박을 제공했더니 그 값을 해 준 거죠. ‘바다 향기’라는 말이 쓸쓸하고 떨리는 느낌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하루 밤을 예서 작은 파도와 함께 자라고 한다. 이 저녁 자기는 인천 누구네 초상집 문상을 다녀서 내일 아침 일찍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선재도 바다 향기에 대해 좀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 구릿빛으로 그을리기는 했어도 도시 청년 같은 반듯한 얼굴. 그리고 바람 부는 바다, 검은 개펄에 발을 담그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노라고 고백하는 맑고 저린 눈매.

그를 보내고 잠시, 노을이 쏟아지는 독 위에 앉아 「아버지의 바다」를 읽는다. 이 책은 작년 6월에 나온 김연용 씨의 포토 에세이집. 그가 지난 3년 동안 눈 먼 아버지를 카메라에 담고, 바다를 담고, 또 섬을 담고, 그리고 '바다'와 '향기'에 대해서도 시처럼 글을 적은 예쁜 책이다. 발행 6개월만인 지난 1월에 벌써 1판 3쇄를 발행할 정도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도 했고.

아버지 김선호(金善鎬) 씨는 8년 전 당뇨병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었다. 선재도 4대 토박이 대장장이였고 목수였던 아버지가 장님이 된 것이다. 그래서 연용 씨는 수원대 조소과(彫塑科) 2학년, 꿈 많은 학창 생활을 접고 군대부터 갔다.

그가 군대에 있는 동안 아버지는 어머니를 따라 개펄에 나가 더듬더듬 조개를 주웠다고 한다. 소리를 줍고 동죽, 바지락을 광주리에 채우면서 아버지는 조금씩 뻗 흡처럼 껌껌했던 절망을 이겨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침내 푸른 눈물 같았던 바다를 바라보고, 바다를 걷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제대 후에는 학교에 가는 대신 매일 10리 밖 어장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아버지의 눈이 되었다. 그 10리 밖 바다, 말장(말뚝)에 쳐 둔 자릿그물이 바로 우럭이나 놀래미 따위가 걸려드는 아버지의 어장이 되었고, 바다와 집 사이를 묶어 둔 8km짜리 나일론 줄이 그 어장을 다니는 맹인 아버지의 길이 되었다. 지팡이 끝에 달린 쇠갈고리를 줄에 걸고, 천천히 훑으며 바다에 나가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는 루쉰(魯迅)의 한 구절같이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새 길이 생긴 것이다.



“그게 아버지의 길이면서 생명 줄입니다. 그 나일론 줄이...”

피곤해 보이는 얼굴의 연용 씨가 밤새 나갔다 돌아온 새벽 바다를 내려다보며 말끝을 줄인다. 바닷물에 떠밀리고 개펄에 부대끼다 보면 새 나일론 줄도 어느덧 삭기 시작하고, 더구나 오랜 날 동안 쇠갈고리가 일으키는 마찰 때문에 중도에 줄이 끊어져 혼자 허둥거리던 아버지를 본 적도 여러 번. 주의를 기울여 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고 한다. 혹 아버지를 제때 마중할 수 없을 때는 대형 스피커 두 대가 바다를 향해 음악을 울린다. 아버지 이제 그만 나오세요.

바다를 걷는 눈 먼 어부와 그 아들. 그리고 이제는 그 두 사람 옆에서 철벽거리며 갈매기를 쫓고, 또 두 사람 몰래 잡은 물고기를 슬쩍하기도 하는 '바다'란 놈. 그가 어제 저녁 떠나기 전, 밤을 위해 마련해 주었던 장작불 흔적을 치우며 흘끗 '바다'를 본다. 눈치를 보면 이따가 아침 10시쯤, 바다를 따라갈 때 틀림없이 이 '바다'란 놈도 데려갈 것이다. 말간 '바다' 역시 그걸 눈치 채고 있는 듯하다. 아하, 이것이 비누 냄새였고, 떨리는 그 바다 향기였구나.

그가 사진 공부를 시작한 것은 3년 전이었다고 한다. 제대하고 집에 돌아와 있을 때 부천에 있는 사진작가 김 모 씨가 우연히 아버지의 상황을 알고는 아버지의 인간적이고도 진실한 모습을 사진에 담아 보고 싶다는 제의를 해 왔다. 눈 감은 아버지의 얼굴. 위태롭게 더듬어 걷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쏟아질 듯한 바다. 아버지가 돌아가야 할 바다. 자신이 가야 할 바다.

그 순간, 연용 씨는 불현듯 아버지의 사진을 찍는 일만은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중단한 미술 공부의 아쉬움 대신 이제 사진을 찍는 거야. 아버지를, 바다를,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남겨 두는 거야. 그런 연유로 연용 씨는 아버지를 찍는 사진사, 바다를 찍는 물결 사진사가 되었고, 「아버지의 바다」를 쓰는 시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 슬프고 숨 막히도록 벅찬 누구의 가슴엔들 시인이 살지 않으랴.

“결혼요? 해야겠죠. 아버지 곁에 살아야죠. 좋아하시는 반찬을 가까운 곳에 놓아 드려도 아버지의 수저가 번번이 그릇을 빗나가는 것 때문에...”

수평선을 보면, 늘 신비스런 자연의 힘에 의해 삶이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연용 씨.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그 삶을 힘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어른스러운 아포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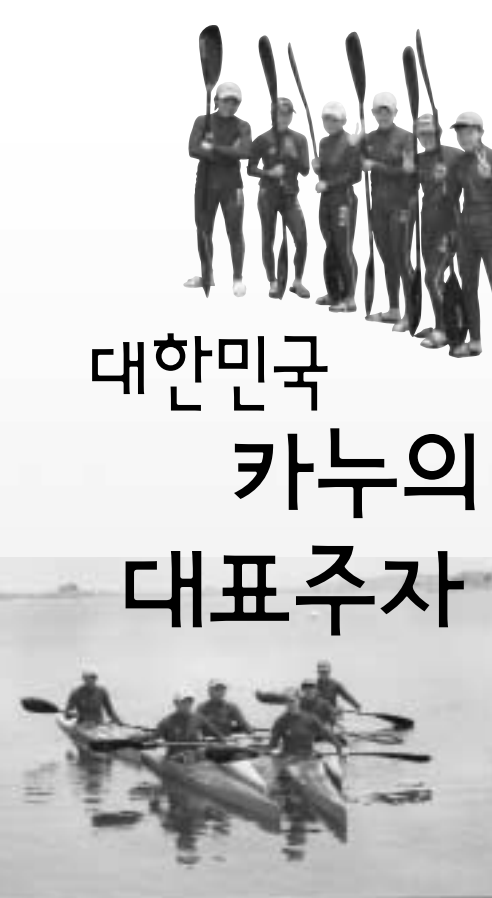
밤새 보이지 않던 여자가 어디서 왔는지 검은 안경을 쓴 채 다가와 마주 앉는다. 그리고는 연용 씨가 아버지의 사진 옆에 써 놓은 구절을 책 속에서 찾아내 읽는다.

“난 아버지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인 이 바다를 '아버지의 바다'라 부릅니다.”

여기 사람들이 '좁사리'라고 부르는 참 이상하게 게으르던 바다가 오늘 아침에는 벌써 10리도 더 멀리 달아나 있다. 오늘은 아침 햇살 속에 펄쩍펄쩍 뛰어 다니는 '바다'를 앞세우고 연용 씨 부자가 경운기로 어장엘 간다. 그 어장 지나 여자는 수평선 저 끝을 다녀온 것이 틀림없다. 마음은 늘 향기에 끌리는 법이니까.

글 _ 김윤식(시인) · 사진 _ 김보섭(사진작가)





대한민국 카누의 대표주자

인화여자고등학교 카누부가 지난 4월
에 ‘해군 참모 총장배 전국 카누대회’
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는데요, 인화여고에서 처음 카누
부가 창설될 때부터 지금까지 21년 째
카누부를 이끌어오고 계신 윤정섭 감
독님께 카누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누는 원시시대에서부터 생활의 수단으로 물건을 옮기는 배에서 유래가 되어 근대 올림픽 1회에서부
터 정식 종목이 된 경기입니다. 인화여고에서 하고 있는 종목은 카누의 일부인 ‘레이싱 경기’로
200m, 500m, 1000m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누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83년 서울에
서였고, 인화여고에서는 1985년 3월 1일에 창단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설은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 준
비 없이 시작했습니다. 창단 된 3월은 아직 추워서 바다에 나가 연습하지 못하고 인천 실내수영장에
서 야간에 인천시와 체육회의 협조를 받아서 약 한 달간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동양화학 정수
장에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더욱 더 힘들었던 것은 배(경기정)뿐만 아니라 노
(페들)도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서 학교에서 경기정을 구입하기 힘들었습니다. 다
행이 주위의 후원으로 지금까지 잘 지탱해 오고 있지요.

그럼 지금부터 인화여고 카누부 자랑을 좀 해 볼까요? 이번 2004년 4월 21일부터 23일 까지 개최
되었던 ‘해군참모총장배 전국 카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K-2 Pair 경기에서 2학년 최윤정, 1학년
조아란 양이 동메달을 따냈고 단체 종목 K-4에서 서리라, 이희연, 조아란, 최윤영 선수가 1000m 금
메달을 따냈습니다. 더욱 더 빛나는 것은 이번 대회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수상실적과 인화여고가 배
출해 낸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수상실적을 살펴보면, 메달수가 3개인 대회에서는 금메달 2개, 6개
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 대회에서는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를 따냈습니다. 결국 종합우승을 하는 등
고등학교의 최상 팀이랍니다. 인화여고에서는 국가대표가 무려 6명 배출되었고 국가대표 상비군은
약 30여명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카누가 불모지이고, 인화여고 역시 한국에서 최초로
여학생들이 카누를 시작 해서 85년 전국체전에서부터 현재 2004년 전국체전까지 좋은 성적을 거두
고 있는 카누는 인천의 가장 효자종목으로 모든 체육인들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힘들게 시작했지만 전국체전의 금메달을 누리기까지 학생들의 수고는 굉장할 것입니다.
윤정섭 선생님께서 가장 기뻐했던 순간은 수십 번 수백 번 물에 빠져가면서 연습했던 선수들이 시합
에 나가서 메달 권에 들어가거나 금메달을 땀을 때라고 합니다. 모든 운동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
리 학교 학생들은 아침 새벽에는 2시간, 오후에 3시간 정도로 하루 5~6시간 정도를 훈련합니다. 강
도가 높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수들의 기분에 맞춰가면서 훈련을 받기도 하지만 너무나
가혹할 정도의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오전에는 학교수업을 듣습니다. 운동량이 많지는 않지만
여름에 햇볕을 받고 물위에서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든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렇게 운동도 열
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얻는 선수들에 대해 감독님은 작은 푸념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우선 선수의
숫자가 적대요. 명수가 6명이 아니라 8~9명이 되어야 금메달 6개가 달려있는 전 종목을 출전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특히 인화여고 선수들은 이상하게(?) 키가 좀 작아서 좀 컸으면... 하신답니
다. 인화여고 선수들! 우유 많이 먹어야겠는데요?*** 이렇게 선수들이 좋아하는 카누의 가장 큰 매
력을 꼽자면, 카누는 자연을 접하는 운동으로 격한 선수들은 성격이 온화해지고 승부욕을 만들 수 있
다는 점에서 어떤 운동보다 좋습니다.

앞으로 인화여고 카누부가 오랜 전통 속에서 겪어왔던 그 소중한 희노애락을 발판으로 삼아 더 밝은
빛을 쏘아 올리기를 바랍니다. 태양아래에 선수들이 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젓고, 훈련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최선이 최고를 만들 듯, 인화여고 카누부 선수들의 최선이 최고의 인화여고와 나아가,
최고의 대한민국을 만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계로 무대를 넓힐 그 날을 위해~ 인화여고
카누부 파이팅!

글 · 사진 _ 윤슬기 (인화여고2 제4기 청소년웹진MOO 학생기자)



성병, ‘파트너’와 함께 받는 치료

글 _ 김명수 (내과전문의 · 인천광역시역학조사관)

여름 피서철은 로맨스의 계절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칫 충동적인 사랑으로 성생활이 문란해질수 있는 때이기도 어느 때보다도 세심한 주
의가 필요한 때이다.

성생활이 문란해지고 병원균의 기존 치료약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면서 성병환자와 성병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크게 늘고 있다. 얼
마 전 연구조사에 따르면 전립선염 환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젊은 시절 성병에 감염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병에서 유발된 전립선
염은 대부분 초기 성병 치료에 소홀했기 때문으로, 젊은 시절 무분별한 성생활을 자제하고 콘돔 등을 사용하는 것과 함께 일단 성병에 걸
리면 완치될 때까지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성병이란 성병에 감염된 사람과의 성행위로 인해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성병에는 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임
균성 요도염(클라미디아), 성병성 육아종, 서혜림프육아종 등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6개 질환과 트리코모나스질
염, 칸디다증 2가지를 추가한 것이 이전의 설명이었으나, 근래에는 이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질병이 성적 접촉에 의해 매개되는 사실에
입각해 이들을 통틀어 일명 성인성 질환(ST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이라고 총칭한다.

성적 만남이 잦을수록, 성교 상대를 자주 바꿀수록, 그 성교 상대의 범위가 넓을수록 성병의 전파속도는 빨라진다. 성행위의 행태가 다양
해지고 동성연애자가 증가하여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성기외의 부위에 성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성병치료에 잘 듣는 항생제 및 각종 화학요법제가 개발되었으나 항생제의 남용 및 장기 복용에 의한 내성균의 출현은 그 치료를 더
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성병은 다른 질환과 달리 재감염이 쉽고 감염경로가 동일하고 상대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항상 관련된 모든 성교
상대자를 동시에 치료하여야 한다. 성병은 세균, 바이러스, 원충, 곰팡이균의 감염에 의해 발병되며 주 감염경로는 감염된 사람과의 성행
위이다. 손가락이나 입(키스)을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으며 감염된 산모가 출산할 때 아기에게 옮길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위행위를 한다
거나 이성과의 포옹, 손잡는 것, 수영, 목욕을 하는 데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성병은 남 · 여 모든 연령대의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으며 10대 후반, 20대 초 · 중반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경우 증
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궁 등의 장기가 감염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불임, 자궁경부암 등 중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정답은 감염된 성병 종류에 따라 다른데 성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서 소변을 볼
때 타는 듯한 느낌이나 동통, 성기로부터의 비정상적인 분비물, 성기부분의 궤양, 발진, 성기나 그 주위의 가려움 등이나 불편함, 성기 근
처 서혜부 임파선 종창 등이 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성병에 감염되었는가에 따라 증상이 달라진다.

성병은 성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므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무분별한 성생활을 자제하
고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성병의 감염이 의심스러우면 즉시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성행위 전후 예방을 위해 임의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은 항생제 내성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감염된 환자와 섹스파
트너의 조기 치료는 성병의 확산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성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성병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 성병은 거의 모두가 성관계에 의해 전염되므로 한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좋다.
- 청소년들이 성행위를 한다면 이른 나이에 시작한 만큼 많은 사람들과 성관계를 갖게 되어 성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 유흥가의 접대부나接客업소의 종사자 등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피하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 성병 검사를 받는다.
- 성관계를 가질 경우 성병을 예방하는 정확하고 간편한 방법은 남성이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의학전문가들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 440-2073)

사랑하는 장수풍뎡이



상쾌한 아침, 우리 가족은 곤충의 나라 벅스투유로 떠났다. 굿모닝인천 3월호에 소개된 벅스투유에 대해 엄마께서 이야기 해주신 날부터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드디어 3월 28일에 강화 곤충농원 벅스투유에 도착

했다. 아빠 엄마께서는 나비 표본실을 돌아보시고 나는 장수풍뎡이와 사슴벌레가 더 보고 싶어 이쪽 저쪽 헤메다 끝 방 조금 어두운 곳에서 장수풍뎡이를 보았다. 부모님께서 내 마음을 아셨는지 암컷 2마리와 수컷 1마리 유충을 사주셨다. 잘 키우기로 나 자신과 약속했다. 그 때부터 우리 가족은 장수풍뎡이에게 관심을 쏟았다. 장수풍뎡이를 보고 싶어서 낮이나 밤이나 지켜보았는데 자주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십 일이 지나자 부엽토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이 걱정돼 아빠께 여쭙보았더니 공기가 안좋아서 그렇다고 하시면서 애벌레가 동굴동굴 말아놓은 똥을 모두 치워주셨다. 나는 건조해지지 말라고 부엽토 위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 주었는데 이것은 장수풍뎡이가 촉촉하고 습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장수풍뎡이 애벌레는 같은 생활을 반복하다가 4월 19일, 20일 만에 번데기가 되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5월 25일 밤 10시에 드디어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허물을 벗고 성충으로 변신하는 과정이 다이아몬드처럼 보였다.

수컷은 뿔이 멋지게 났고 암컷은 좀 덜 예뻐다.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참고 인내해서 깨어났으니 암컷이나 수컷이나 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장수풍뎡이는 하루하루 틀리게 변해갔는데 행동도 처음보다 빠르고 색깔도 검정에서 갈색으로 변해갔다.

생각해 보니 무엇이든지 노력없이 이루어지는게 없는 것 같다. 생명이란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고 온몸으로 느꼈다. 알을 낳으면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한다. 작은 곤충이지만 키우면서 맛보는 큰 기쁨을, 새로운 사실을, 소중한 생명의 힘을 친구들도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마음이 뿌듯해진다.

이재성 (석천초 4)

삐삐를 보쌌한 사연

제게는 애완동물에 관한 비밀이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는 일이지만 항상 누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누나가 이 글을 읽는다면 회사에서 조퇴라도 하고 달려올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군요. 누나, 미안해!!

사건의 발단은 제가 어느 여학생을 너무나 좋아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한창 이성에 눈 뜰 나이 즈음에 학교 앞 서점의 소녀를 흠모하게 되었죠. 친구들간의 경쟁도 치열했고 공부와 담을 쌓은 녀석들도 책을 사러 다니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는 단짝 친구의 도움을 얻어 소녀가 치와와를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똥개라면 어디서 구해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치와와는 고급 애완견에 속했습니다. 짚순이 엄마가 주시는 용돈으로 어렵도 없고 그대로 포기하자니 오기가 생겼죠. 그런데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글썄 누나가 친구의 집에서 태어난지 얼마 안된 치와와를 얻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반가웠지만 후사를 도모하기 위해 투덜거렸습니다.

한 일주일 쯤 상황을 지켜보다가 누나가 시험 공부를 위해 도서관에서 늦게 오는 날을 D-day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죠? 그 소녀와 지금 한 집 생활을 하고 있다면. 누나는 시험도 망치고 마음도 상해서 며칠 동안 이불 속에서 앓았습니다. 언제고 꼭 예쁜 애완견을 사주려고 벌렸는데 이번 주말에는 아내와 시간을 내 볼 생각입니다.

누나!! 정말로 미안해. 하지만 누나 덕에 예쁜 조카가 생겼잖아!!

한승준 (서구 가정동)

기억 속의 친구

언제나 내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처음 우리집에 오던 날이 15년 전이지만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른다.

내가 중학생일 때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개인사업을 하던 아버지의 차소리와 함께 두 팔에 들려있는 조그마한 라면 상자를 발견했다.

얼마전 아버지 친구분 농장에서 치와와가 새끼를 낳았는데 너무 예뻐서 친구분께 낳 위해 말씀해 놓으셨다는 그 강아지가 분명한 게다. 구멍 속으로 검은 두 눈동자가 처음으로 나와 마주치면서 서로 깜짝 놀랬다. 눈에는 눈물자국과 차에 시달리느라 멀미까지 한 모양이었다.

하루를 꼬박 달래고 어르고 장식장 밑에서 스스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 누구의 손도 피하더니 장식장 밑으로 넣은 내 손에 턱을 올려놓았다. 집에 온지 꼭 하루 만이었다. 하지만 목의 끈

을 잡는 순간 달아나 버렸다. 또 한나절이 지났다. 온 가족이 총 동원해 결국 강제적으로 몸을 밖으로 들어냈다. 난 한 팔에 안아들어 쓰다듬어 주고 꼭 안았다.

그렇게 우리집의 재롱둥이가 되었고 항상 반겨주며 어딜가나 따라다녔다. 우리집에 오기전부터 지어준 '해피'라는 이름을 달고 스스로 우리가족의 일원이 되어버렸다.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했다.

시험기간이라 바빴던 어느날 해피가 좋아하는 맛포를 주었다. 나중에 같이 많이 놀아주겠다고 얘기하고는 공부하기 시작했다. 잠깐 순간이었다. 이웃아저씨께서 달려오셔서 개가 교통사고 났다고 하셨다. 믿기질 않았다. 불과 5분도 되질 않았기 때문이다. 맛포를 맛있게 먹던 그 눈망울이 그게 마지막 모습이였다. 가슴이 찢어졌다. 나의 학창시절 해피와의 스토리는 그 걸로 끝이 났다.

요즘도 애견센터 쇼윈도우를 지나칠 때면 많은 강아지들 속에서 우리 해피의 모습을 찾곤 하지만 혹시라도 자기를 잊었다고 서운해 할까봐 나 역시 다른 강아지들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김효영 (서구 검암동)

우리집 삐약이



몇 년 전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이에게 경제관념 및 본인의 용돈을 스스로 관리하며 아껴 쓰는 방법을 알려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용돈 기입장과 함께 일주일에 2천원씩 용돈을 주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특이하게도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을 아끼고 모아서는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작은 애완동물들을 사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학교 앞에 병아리를 판다며 어느 날 병아리 두 마리를 사 가지고 와서는 애지중지 정성껏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의 그런 노력덕분인지 하루 이틀이면 대부분 그냥 죽어버리던 병아리들이 울해는 죽지 않고 지금까지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느새 뽕송뽕송하고 예쁘게만 보였던 병아리들이 자라 달털도 나고 몸집도 제법 커졌답니다.

그렇게 아들녀석이 용돈을 모아 사오기 시작한 애완동물이 저희 집에는 금붕어도 있고 소라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녀석의 작은 소원은 아파트가 아닌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면서 고양이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며 사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장래 희망은 동물 병원 원장님이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장정화 (남동구 고잔동)

이별의 고통

2000년 나의 분신이었던 큰아이가 유명을 달리해 가슴에 뚫린 구멍이 메워지지도 않았는데 이듬해 이 하늘아래 단 한 분 뿐이시며 나이 오십이 지났어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의지하고 믿어왔던 어머니마저 이 광활한 세상에 나를 남겨두고 저 세상으로 가셨을 때이다. 나이 오십이 넘었어도 그 괴로움을 참기가 너무 벅찼다. 작은아이하고 단둘이 사는 대지 52평의 단독주택이 별안간 허전해 보이고 몸에 익숙치않아서 솔로 달래던 때이다. 나의 이런 모습을 보던 지인이 집도 넓는데 개를 한 마리 키워 보는게 어떻겠냐고 넌지시 물어오는 것이다. 개는 좋아하지만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 싫다고 했지만 어느날 별안간 강아지를 갖고 온 것이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적막함과 고요함에 휩싸이던 집에 강아지가 있으니까 사람 하나가 더있는것 같다. 텅빈 집에 들어올 때 개라도 반기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개가 걱정이 되어서 될 수 있는대로 집에 빨리 들어오게 되고 자연히 술도 덜 마시게 되었다. 나도 그렇지만 아들놈도 꽤나 개를 좋아한다. 이렇게 지나던 어느날 빵이 먹고 싶다고 해서 빵을 사오리니까 아들놈이 개를 데리고 간다. 아들놈도 그 즈음 개하고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집에 있는 시간이 부쩍 많아졌다. 빵을 사러 간 애가 두시간이 지나도 안온다. 왜 이렇게 늦을까 기다리니까 그 후 한참 있다 얼굴이 퉁퉁 부어서 들어오며 빵가게 들어가서 빵을 사가지고 나오니까 개가 없어 지금까지 찾아 오는 거라며 다시 나간다. 내가 그렇게 말려도 아들은 3일 동안을 송의동을 헤매며 개를 찾아다녔다. 나이가 서른이 됐는데도 아직 마음이 여린 것이 느껴졌다. 나도 개가 눈에 어른거려 한동안 괴로웠는데 아들놈한테 또 하나의 상처를 준거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헤어지는 아픔이 싫어서 그 후론 또 개를 기를 엄두가 안 난다.

백기용 (남구 송의동)

다음달 테마는 '나의 여름나기'입니다

'나의 여름나기'에 얹힌 재미있는 글(200자 원고지 3매 이내)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2장)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께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7월 20일 까지 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초롱이를 만나던 날

저는 동물 알려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완견이라도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건 좀 심하게 혐오감을 느끼며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초롱이랑 함께 산지 벌써 8개월을 맞이하네요. 너무 늙어서 이빨도 거의 빠져서 없고, 관절염에 걸려서 다리를 절룩거리며 다니는 초롱이. 음식을 씹지 못하지만 고기를 잘게 잘라주면 잘 먹는 늙은 여우 초롱이. 예쁜 짓을 해서 제가 제일 예뻐하니까 저한테 매달리고 비비고 애교를 부리는데 막내딸 재롱 보는 느낌이 이럴까요?

이렇게 예쁜 초롱이가 우리 집에 온건 작년 시월 말 쯤. 퇴근해서 현관을 여는데 털복숭이 개가 튀어나오며 짖어대서 쫓아냈는데 3일후 계단을 오르내리며 현관문을 긁고 공공대길래 또 쫓아버리고 했습니다. 까맣게 잊고 며칠 후 일요일 아주 가끔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싶어 아이들 방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그곳에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학교까지 쫓아다니고 며칠을 밖에서 집을 잃고 헤메는 강아지가 불상해서 데려왔다는 말에 자세히 눈을 보니 불쌍하더라고요. 그 길로 개집도 사고 병원도 데려가서 검진도 하고 예방접종까지 하니까 15만원이 넘어 버리더군요. 울며 겨자먹기로 모든걸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슈퍼아저씨께서 강아지 주인을 아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싫던 개인데 웬지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주인이 나타났으니 어찌겠어요. 검사비랑 예방접종비만 주고 찾아가라고 집을 알려드리고 왔는데 연락이 없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슈퍼아저씨께 그냥 키우라고 했더군요. 언젠가 우리 아이가 초롱이를 안고 나가니까 다른 이름을 부르며 쫓아오는데 초롱이가 그냥 오더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함께 살게 된 초롱이는 정이 많이 들어서 너무 예뻐요. 사랑스럽구요. 이빨 나이로 여섯 살을 추정하던 의사 선생님이 관절염에 걸렸으니 살도 1kg정도 빼고 사료만 주라는데 사료를 잘 안먹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답니다.

김금순 (부평구 부평동)



우리애 친구 토리

혹시 햄스터의 수명이 몇년인지 아세요? 저희집에 3년된 햄스터가 한마리 있는데 아주 건강하거든요. 동물을 유난히 좋아해 애견센터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작은 애에게 할머니께서 3년전 햄스터 한쌍을 선물하셨어요. 해마다 어린이날 선물 1순위가 '강아지키우기' 일 정도로 동물을 좋아하지만 아이의 아토피가 조금 심한 편이라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었거든요. 두 마리중 한 마리는 일년을 살다 죽었고, 그 후 혼자서는 외로운 것 같아 중간에 한 마리를 분양받아 짝을 맞춰 줘 보았으나 그것마저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죠. 어느날 햄스터가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몸집이 커지더니 집뚜껑을 열고 나간 것 같은데 온 집안을 뒤져보아도 보이지 않고, 며칠이 지나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거예요. 배가 고플텐데 어떡하냐고 작은애는 울먹거리다 비닐로 된 먹이봉투가 뜯어져 있는걸 보고서야 분명히 집안에 있는 것 같아 희망을 가졌죠. 남편은 햄스터는 야행성이라 밤에만 활동을 하니 보초를 서야 된다고 탐정같은 추리를 하더니 보초선지 4일만에 드디어 잡았어요. 집나간지 보름만에 돌아온 햄스터는 조금 난폭해져 있었지만 새로 산 큰집에 넣어놓으니 금방 조용해졌어요. "토리아! 손~손. 옳지 잘한다. 자 이번엔 발~발"작은애가 햄스터를 훈련시키는 소리예요. "엄마! 우리 토리 진짜 영리하지? 그치?" 햄스터가 진짜 말을 알아듣는지 알수없지만, 아이가 친구처럼 식구처럼 대하는걸 보니 정말 행복한 햄스터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임순정 (서구 검암동)



우리 아이의 벗



집이 건조해서 늘 감기를 달고 살던 아이를 위해 집안의 습도도 높이고 아이의 정서에도 좋을 것 같아 키우기 시작한 우리 집 귀염둥이 금붕어들이랍니다. 금붕어를 키운 뒤부터 아이의 건강도 훨씬 좋아졌고 무엇보다도 아이의 정서 발달에 좋은 것 같아 여러모로 좋답니다. 이 두마리의 금붕어를 키운지 벌써 3년째 접어드네요.

장준영 (남구 주안2동)

마뱀이를 소개합니다



도마뱀인 제애완동물의 이름은 마뱀이입니다..^^ 사진을 보면 제 손을 꼭 붙들고 입을 벌리고 있어서 꼭 하하하 웃고 있는것 같지만 사실은 화가 난 거랍니다. 성격이 워낙 예민하고 사나워서 만질때마다 물리기 십상이지만 그래도 친해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사람들은 왜 하필 도마뱀이냐며 핀잔을 주지만 제게는 강아지나 고양이보다도 더 귀여운 제 애완동물 입니다^^ 특히 커다란 눈동자가 마음에 듭니다^^

나름대로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키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앞으로도 우린 계속 동거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겠습니다..^^

이주희 (계양구 계산2동)

우리집 번지는 귀염둥이



우리집 귀염둥이 번지를 소개합니다^^ 번지란 이름은 이리저리 팔딱팔딱 잘 뛰라고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집안에서도 바깥에서도 정신없이 신나게 뛰어논답니다^^

박재성 (부평구 갈산동)

여비와 나들이를



오랫만에 예뻐 데리고 나들이를 갔었죠??? 얼마나 좋아하던지^^* 이젠 자주 나들이를 다녀야겠어요,, 포즈도 끝내주죠???

이지혜 (서구 심곡동)

또아~



사진 귀엽죠?^^ 하지만 이 귀여운 모습을 안본지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이름은 또아구요. 집을 나갔답니다. 처음에는 돌아올까라고 믿었는데요 그게 아닌거 같아요. 정말 많이 속상했었어요. 또아가 집을 나간날이 또아가 목욕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야자두 빼구 일찍 집에 갔는데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목욕이라두 하구 가지...' 이런 생각 많이 했답니다. 지금은 제

곁에 없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보살핌 속에 살구 있을지도 모르는 또아를 생각하면 힘이 나네요..^^

한규화 (남구 송의동)

반려동물 미니예요



동생이나 저나 항상 성을 붙여서 '이미니'라고 부르는 저희집 사랑둥이는요, 꼭 사람같은 마스크를 지녔답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다가도 큰 눈동자를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요. 제 동생 지아가 미니에게 물을 주는 장면입니다. 지아는 미니의 모든 행동을 칭찬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노는 존재가 아닌만큼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 불러야하지 않을까요?

이슬아 (계양구 작전동)

우리는 동갑



우리 애랑 나이가 비슷한 큰집 개예요. 가끔씩 큰집에 내려가는데도 꼬리를 흔들며 저희 식구들을 알아보는걸 보면 여간 영리한게 아니예요. 큰집에 도착하면 '케리아' 하고 먼저 달려가서 할머니께서 조금 서운해 하시긴 하지만요.

최승희 (서구 검암동)

사업 고민
좌~악
퍼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달 9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 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광고료(1개월 · 컬러 기준)

표4 (맨뒤 겹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562,000원	1,665,000원	1,281,000원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편집팀(032-440-2042, 2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CCTV)시스템으로 단속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버스전용차로 등 상습위반지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과학적이고 효율적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군·구별로 단속스티커를 붙이고 지역별·노선별로 순회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단속을 위해 무인단속(CCTV)시스템을 도입해 버스전용차로 등 상습위반지역을 상시 무인 및 차량탐재 시스템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경고스티커 부착 없이 CCTV 촬영만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게 됩니다.

문의 _ 시 주차관리과 (440-3722)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
- **납부 기한** : 7. 16 ~ 7. 31
- **납부 장소** : 인천시 관내 시중은행, 전국농협·우체국
- **납부 문의** : 각 군·구 세무과(재무과) 재산세팀
 - 중구세무과(760-7261) 동구세무과(770-6281) 남구세무과(880-4191) 연수구세무과(810-7180) 남동구세무과(453-2281) 부평구구세과(509-6180) 계양구세무과(450-5232) 서구세무과(560-4201) 강화군재무과(930-3281) 옹진군재무과(880-2201)
- **인터넷 납부제도**
 - 금 융 결 제 원 인 터 넷 지 로 (www.giro.or.kr)와 17개 시중은행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 한미은행 인터넷뱅킹(www.goodbank.com), 계좌이체, 카드납부(한미비자카드)도 가능합니다.

7월 1일 부터 인천지하철요금이 바뀝니다

7월 1일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및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 등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철도청 등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에서는 요금체계 및 요금인상을 추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지하철도 수도권 4개 연락운송기관간 요금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기관간 공동보조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요금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교통카드 표준요금제 도입** : 현재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대다수가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어, 이번부터 요금체계를 교통카드로 표준요금제를 적용하고, 현금사용자에게는 추가요금 10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 **할인제도**
 - 청소년 할인 :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표준요금의 20% 할인
 - 초등학생 할인 : 교통카드 및 현금승차시 표준요금의 50% 할인
- **지하철 정액권 폐지**
 - 현재, 정액권 기능을 교통카드가 대체하고 있으며, 교통카드 활성화 및 원가절감 등의 방안으로 정액권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 **요금변경**
 - 현행 기본요금 : 700원 (기본거리 : 10km)
추가요금 : 80원 추가 (5km 초과시마다)
 - 개편(안) 기본요금 : 800원(구간 12km) => 교통카드 이용시
추가요금 : 100원 추가 (6km 초과시마다)
- ※ 현금승차시 페널티 적용 기본요금 100원 추가 (900원)

문의 _ 시 교통기획과 (440-3874)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008년 꿈의 미래공간 송도신도시로의 캠퍼스 이전과 세계화된 대학으로 거듭나는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최고경영자과정과 중국통상고위관리자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최고경영자과정 및 중국통상고위관리자과정 모집요강

구 분	최고경영자(CEO)과정(제27기)	중국통상고위관리자과정(제5기)	비 고
원서교부/접수	7. 1 ~ 7. 30	7.1 ~ 7. 30	대학본관519호실
등 록	8. 16 ~ 8. 27	8. 16 ~ 8. 27	우리은행인천대학출장소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서류전형 및 면접	
합격자 발표	8. 16(월)	8. 16(월)	
모집대상	최고경영자 및 임원, 국회의원, 시의원, 고위공직자 등	중국에 관심있는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기업체의 경영자 및 관리자, 언론, 법조, 세무, 의사 등 각 분야 지도급 인사	학력제한 없음
교육형태	1년 2학기제, 주 1회(수요일) ▶초청 강의: 18:30~21:40	1학기제(15주), 주 1회(월요일) ▶중국어회화: 18:00~18:50 ▶초청 강의: 19:00~22:00	수료과정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1통 ·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해당자)1부 · 본인및배우자 반명함판 사진 3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문의처 _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학과(770-8502~3 http://www.incheon.ac.kr)

인하대병원 ‘변비’ 무료 건강공개강좌

인하대병원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달 무료 건강공개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달 주제는 ‘변비의 이해와 치료’입니다.

- **일시** : 7. 27(화) 15:00~
- **장소** :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 **강사** : 소화기내과 권계숙 교수
- **기타사항** : 건강강좌에 참석하는 분은 무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문의 _ 인하대병원 홍보과(890-2640~2)

시민정치교육 콘텐츠를 공모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의 민주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선생님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콘텐츠를 공모합니다.

- **응모기간** : 7. 1 ~ 8. 31
- **공모자격** : 초·중등교사
- **공모내용** : 초·중·고등학생의 민주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내용 및 방법
- **작품규격** : 규격이나 형식에는 제한이 없음
- **응모요령** :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
※신청서는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ic.election.go.kr)에서 첨부화일을 다운받아 작성
- **제 출 처** : 우) 110-712 서울특별시 중로구 인의동 48-25 선거연수원 시민정치교육 콘텐츠공모 담당자 02)765-2392, 764-0213 e-mail : cha1214@hanmail.net, nec624@hanmail.net
- **시상내역**
 - 최우수작(1) : 1,000,000원
 - 우수작(2) : 각 500,000원
 - 가작(3) : 각 300,000원
 - 장려작(5) : 각 200,000원
- **당선자 발표** : 10.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 **시상식** : 10. 15 (금) 11:00 선거연수원 강당
- **기타사항** : 응모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리는 선거관리

제3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하세요

1. **신청기간** : 7. 1 ~ 8. 31(공휴일제외)
 2. **신청대상**
 -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3.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
 4. **신청서 접수기간**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자치행정과(행정과)
 5. **지급액의 산정기준** : 법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거 산정
 6. **심의·결정절차** :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행방불명자는 12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신청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7. **허위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이중 보상신청 금지**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식은 각·시도 자치행정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minjoo.go.kr-자료실-신청안내 및 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_ 민주화보상지원단(02-3703-5810, 5812)

위원회에 귀속되며 선정된 작품은 자료로 발간하여 시민정치교육자료로 활용

문의 _ 선거관리위원회(02)765-2392, 764-0213)

인천여성긴급전화(1366) 서명운동

참여해 주세요

인천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가출 및 미혼모, 외국인 여성 등 위기에 처한 여성들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24시간 충분하고 세심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여성부 지원의 상담기관입니다. 인천여성긴급전화는 인천의 14개 주요 상담기관 및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과 연계해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보호망입니다.

이번에 연중기획으로 ‘행복지킴이 인천시민 1만 서명 운동’을 시작했으며 가정폭

력·성폭력 등으로 피해 당하는 여성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_ 인천여성긴급전화 (1366)

자원봉사자 모집합니다

사단법인 지역복지센터 ‘나눔과 함께’(이하 나눔과 함께)는 지역 사회복지 운동을 하고자 만들어진 복지센터입니다. 지난 2월부터 나눔과 함께는 민주노동안 장애인 복지 특별위원회, 나눔과 연대의 학생공동체 두레와 함께 국철을 중심으로한 1차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사업을 마쳤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2차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사업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조사 기간** : 7월 ~ 12월
 - **조사 대상** :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청사, 보건소, 학교, 대형마트, 민간의료시설,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 30여곳
 - **자원봉사 모집대상** : 장애인, 비장애인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중·고·대학생 - 자원봉사 인증서 발급) 수시 모집
- 문의 _ 나눔과 함께 (433-6150), 장애인 복지특별위원회(504-6134) [http://cafe.daum.net/2wheel\(자원봉사\)](http://cafe.daum.net/2wheel(자원봉사))

인천상공회의소 국가검정업무 사무실 부평이전

인천상공회의소 국가검정업무 사무실이 한 발 다가서는 대원원 서비스를 위해 교통이 원활한 부평지역으로 이전합니다. 새로 이전하는 사무실은 부평시장역 1번 출구에서 부평구청 방향으로 약 100m 떨어진 한서상호저축은행 2층입니다.

이전한 사무실에서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워드프로세서 필기시험에 대비해 17인치 LCD모니터를 갖춘 최신 기종의 컴퓨터를 설치한 상설시험장을 꾸며 수험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 시행중인 상설 실기검정은 6월 14일부터 접수를 재개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부평구청역 부근의 북부지원센터도 같은 사무실로 이전해 부평·계양·서구지역의 상공인들에 대한 회원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_ 인천상공회의소 (501-6700)

시민단체 네트워크에 등록하세요

우리시에서는 시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네트워크> 환경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네트워크는 온라인을 통한 시와 시민단체간, 각종 단체 상호간의 정보교류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오프라인으로 확대해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각종

단체의 온라인 등록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등록대상** : 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각종 법인단체, 직능단체, 동호회 등
- **시민단체 네트워크 창 찾기**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상단 <열린시청> 아래-홈페이지→열린시청→시민단체 네트워크(클릭)
- **<시민단체 네트워크> 등록 대상 및 요령** : 네트워크 가입신청 및 변경→시민단체 네트워크 이용약관 숙지 후 [동의]→기재사항 입력 후 [등록]

※ 주의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에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시민단체 네트워크와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대한 안내이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_ 시 자치지원과 (440-2444)

인천역사탐방 프로그램 열립니다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인천역사탐방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인천역사의 유구함에 대한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테마별로 역사교실을 운영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인천시에 사는 분들이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받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교재를 제공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 **일정**
 - 테마1 : 7월 24일 시 지정 문화재 및 기념물 탐방
 - 테마2 : 8월 14일 근대 개항지를 중심으로
 - 테마3 : 8월 21일 강화 유적지 탐방

참가신청 및 문의 _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429-6250, 5743)

서구 사계절 물썰매장 개장합니다

서구 물썰매장과 야외풀장이 7월 3일 개장합니다.

- **요금**
 - 성인 7천원, 청소년 5천원, 소인 4천원
 - 단체 30명이상 20% 할인, 50명이상 30% 할인(평일에 한함, 단체 인원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면제)
 - 유료번지 5천원

문의 _ 서구사계절(물)썰매장 (565-3483, 560-4945)

생생요리 한마당에 응모하세요

새콤 달콤 매콤한 자극적인 반찬들, 간편한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 이렇게 병든 밥상과 오염된 환경으로 인한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밥상을 꾸며봅시다.

- **응모기간** : 6월 9일~7월 7일
- **응모자격** : 주부, 학생, 일반시민 등 제한 없음

- **참가요령**
 - 채식요리와 함께 한 건강요리법
 - 화학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요리법
 - 요리방법이 단순하며 요리시간이 짧은 요리법
 - 음식 쓰레기 줄이기 요리법

- **응모처** : 인천녹색연합 홈페이지(www.greenincheon.org)에 메일 greenic@chol.com에 연락처와 이름을 기재해 응모

- **시상** : 참가자 전원에게는 환경물품을 상품으로 수여

- **한마당** : 7월 10일 10:00~
- **장소** : 인천사회복지관(남구 학익동) 조리실 (873-0541)
- **우편접수** : 계양구 계산4동 1062 하이베라스 D-712호 인천녹색연합

문의 _ 인천녹색연합 녹색생활위원회 (548-6274)



천일 관음기도 및 만등불사 권선문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상징이며 이타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불자들은 박복무지한 말세의 중생으로 누구나 없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탁업풍에 오염된 群生으로 부드러운 손길을 바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有求皆遂라 하였으며 無願不從이라 하였습니다.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원하는 대로 모두 따라준다는 뜻입니다. 많은 구함과 소원을 오직 관세음보살님께 호소하고 白衣慈母에게 사정을 통해보자는 것이 관음기도인것입니다. 萬燈佛事란 화엄경에 이르기를, 어두운 속에 들어있는 보배는 등불이 아니면 불수가 없고 부처님 法 진리가 아무리 좋하지만 설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燈이란 밝히는 것이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아득한 세월 업에 저리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심성에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자비의 光明이 아니면 도저히 씻어낼수 없으며 칠흑 처럼 캄캄한 生死의 거센물결을 건너감에 있어, 지혜의 등불이 아니면 절대로 피안에 도달 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燈을 밝혀 짙은 죄장을 진실로 참회하고 다생겁래에 쌓여있는 진구 즉 마음의 더러운 먼지와 때를 말끔히 불살라 안으로는 보살의 육도만행을 닦고 밖으로는 일체중생을 널리 제도하겠다는 宏願을 한층 더욱 굳히기 위해, 우리 인천 광역시 철마산 보각사에서서는 千日 관음기도 및 만등불사의 넓은 문을 열어놓고 자타 모두 함께 성스러운 기도와 수행의 길을 걷고자 하옵는바 신남신녀 여러분들은 이에 동참하시어 고통의 바다에서 허덕이고 있는 뭇 중생들이 항상 즐겁고 희망 푸른 세계로 들어 갈수 있도록 서로 권하고 서로 앞장서서 이 기도와 불사가 성황을 이루어지도록 성심을 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기도입재 : 양 2004년(불기 2548년) 7월 17일 토 (음6. 1) 오전 10시

■기도회향 : 양 2007년 4월 12일 목 (음2. 25) 오전 10시

■기 도 비 : 1인 하루 축원비100원씩 1000일간 기도

※제9회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개설 (양 7. 26~29 · 무료)

대한불교
조 계 종 철마산 보각사 주지 석 지 철 합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 산 98-9
Tel. (032) 522-8131, 524-8131, FAX 523-3331